

보도자료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 ☐ 본 자료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200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중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임
- ☐ 수록된 자료는 미상을 제외하여 표의 합계가 다르며, 집계기준의 차이로 기 발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통계청이 작성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 차

□ 요약	2
------------	---

□ 본문

I. 1인 가구 변화추이(전수부문 '00년~'17년)

1. 1인 가구	8
2. 성별·연령별	10
3. 지역별	13
4. 거처의 종류별	16

II. 1인 가구 변화추이(표본부문 '00년~'15년)

1. 혼인상태별	20
2. 교육정도별	23
3. 점유형태별	26
4. 사용방수별	30
5.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유무별	33
6. 직업별 상위 10위	35

III. 미혼 1인 가구 변화추이(표본부문 '00년~'15년)

1. 연령대별, 지역별	36
2. 점유형태별	41
3. 사용방수별	45
4. 직업별 상위 10위	49

□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50
--------------------	----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요약]

1. 1인 가구 전수부문('00년~'17년)

1인 가구가 2015년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함

□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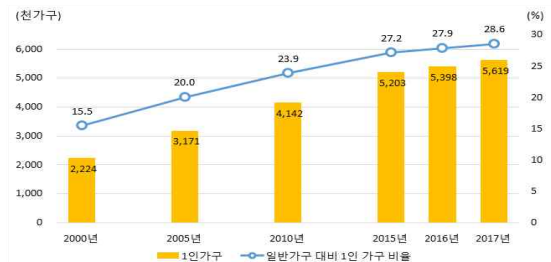
※ 일반가구는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가

○ 1인 가구변화를 성별로 보면

- 남자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2017년 279만 가구로 195.4% 증가함

- 여자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함

[1인 가구 변화 추이 : 2000-2017년]



[1인 가구 성별 변화 추이 :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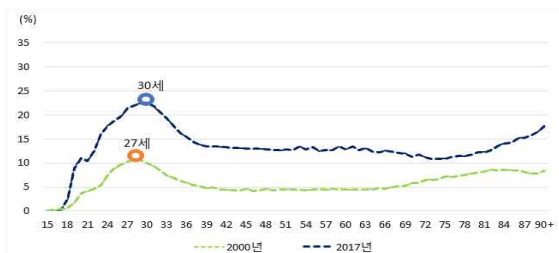
2017년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30세, 여자는 27세와 83세로 나타남

□ 일반가구원 대비 성별 연령별로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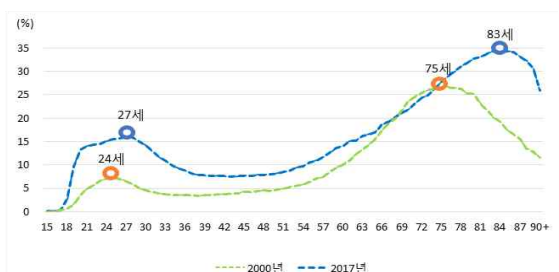
○ 남자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2017년 30세(22.5%)로 나타나 2000년 대비 3세 높아짐

○ 여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연령이 2017년 27세(16.0%)와 83세(34.4%)로 2000년 대비 각각 3세, 8세가 높아짐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비율]
남자 : 2000년, 2017년



여자 : 2000년, 2017년



1인 가구 중 남자는 45세 이상에서 증가, 여자는 65~74세 연령대에서 감소

□ 1인 가구를 성별로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남자는 25~34세 비율이 2000년 37.9%에서 2017년 23.8%로 감소하고,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여자는 4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65~74세 비중은 2000년 23.7%에서 2017년 16.0%로 감소함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 : 2000년, 2017년]
남자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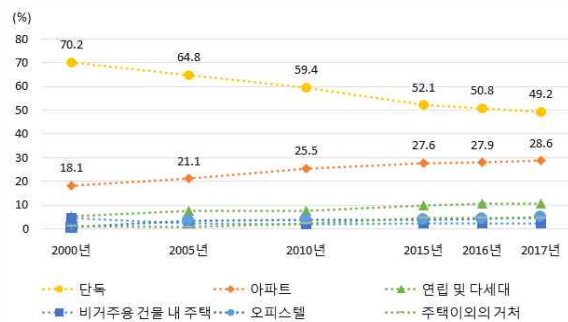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주된 거처는 「단독주택」이나, 그 거주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거주비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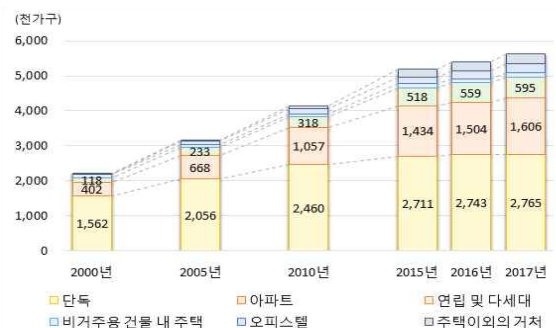
□ 거처의 종류별 변화를 살펴보면

-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49.2%로 50%이하로 낮아짐
-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 18.1%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8.6%를 차지함
-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2000년 5.3%에서 2017년 10.6%로 5.3%p 증가함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비율 : 2000-2017년]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분포 :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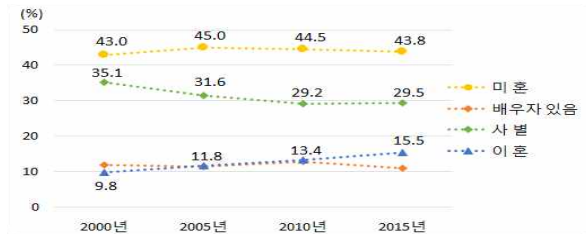
2. 1인 가구 표본부문('00년~'15년)

1인 가구의 「사별」 비율은 감소하고, 「이혼」 비율은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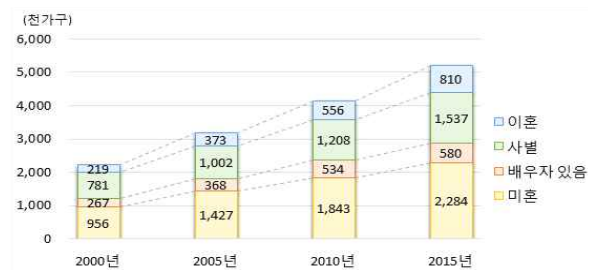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보면

- 「미혼」은 1인 가구의 주된 혼인상태로서 2000년 43.0%, 2015년 43.8%임
- 「이혼」은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5.7%p 증가
- 「사별」은 2000년 35.1%에서 2015년 29.5%로 5.6%p 감소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비율: 2000-2015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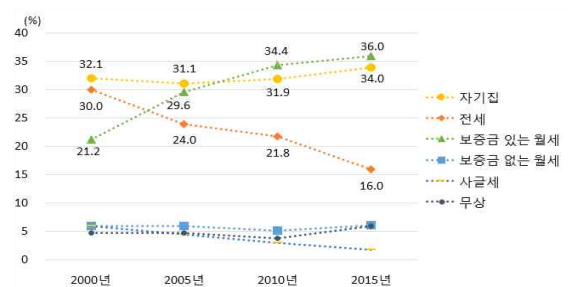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5년에는 「자기 집」이었으나, 2010년 이후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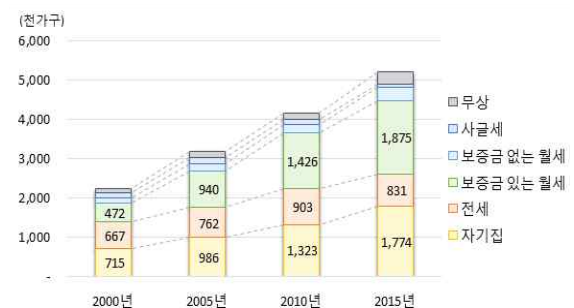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 「전세」는 2000년 30.0%에서 2015년 16.0%로 14.0%p 감소, 같은 기간에 12.7%p 감소한 일반가구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는 2000년 21.2%에서 2015년 36.0%로 14.8%p 증가하여, 9.6%p 증가한 일반가구보다 증가 폭이 큼
- 「자기 집」인 비율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비율: 2000-2015년]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분포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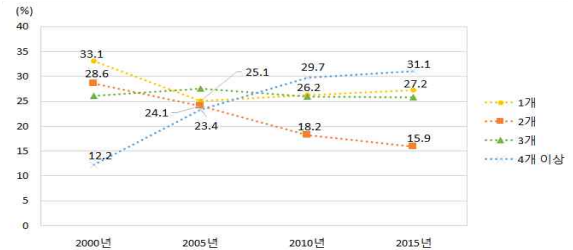


1인 가구 중 사용방수 2개 이하는 감소하였고, 사용방수 4개 이상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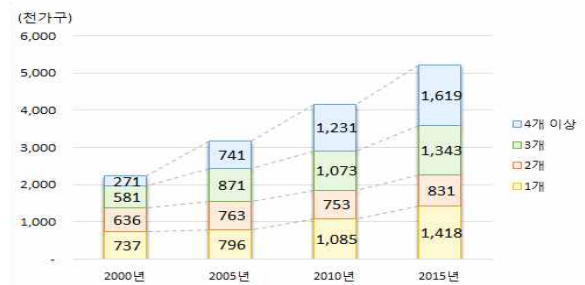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사용방수 변화를 보면

- 사용방수 「1개」는 2000년 33.1%, 2015년 27.2%로 5.9%p 감소하고, 사용방수 「2개」는 2000년 28.6%, 2015년 15.9%로 12.7%p 감소
- 사용방수 「4개 이상」은 2000년 12.2%, 2015년 31.1%로 18.9%p 증가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분포: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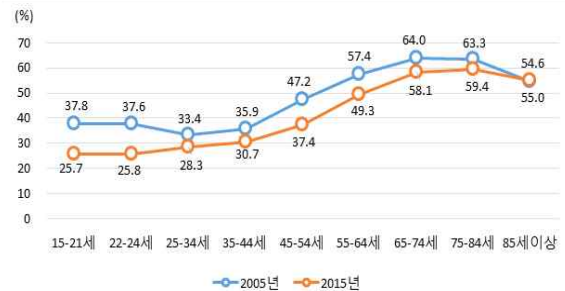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비율 : 2000-2015년]



1인 가구의 「종교 있음」 및 「사회활동 참여」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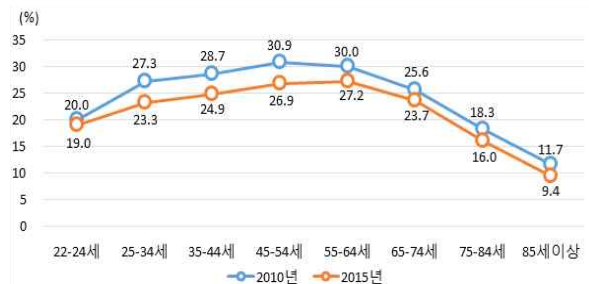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종교 있음」 비율은 2005년 46.3%에서 2015년 41.9%로 4.4%p 감소, 연령대별로 보면 8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종교 있음」 비율 : 2005년 2015년]



-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23.3%로 3.3%p 감소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 2010년 2015년]



3. 미혼 1인 가구 표본부문('00년~'15년)

미혼 1인 가구의 25~34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35세 이상은 증가하였고, 동지역에서 미혼 1인 가구비율은 감소하였고, 읍면지역에서는 증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4세 비율이 2000년 51.9%에서 2015년 38.0%로 감소

○ 35~44세가 2000년 17.5%에서 2015년 24.3%로, 45세 이상은 2000년 5.5%에서 2015년 1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미혼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 2000-2015년]



[읍면면부별 미혼 1인 가구의 비율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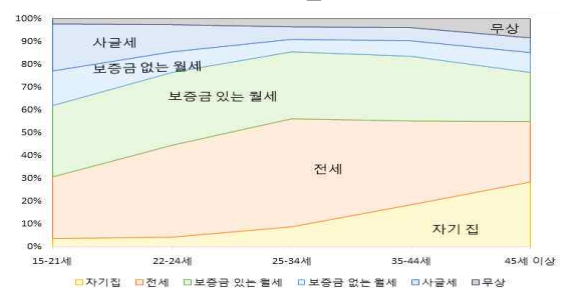
미혼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0년에는 「전세」로 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

□ 2000년 대비 2015년 점유형태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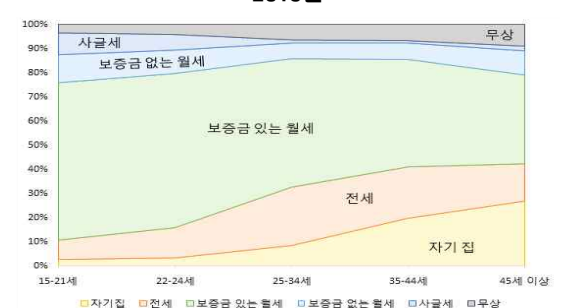
○ (전세) 2000년 대비하여 2015년 「전세」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보증금 있는 월세)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됨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2000년



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2개」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고,
「4개 이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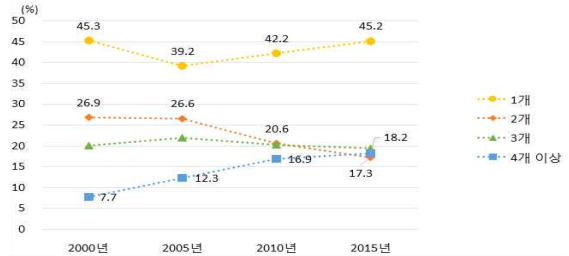
□ 1인 가구 중 미혼은 「사용방수 2개」 인
비율이 2000년 26.9%에서 2015년 17.3%로
9.6%p 감소

※ 전체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12.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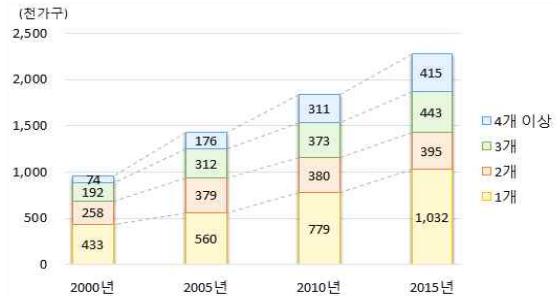
○ 1인 가구 중 미혼은 「사용방수 4개 이상」 인
비율이 2000년 7.7%에서 2015년 18.2%로
10.5%p 증가

※ 전체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18.9%p 증가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비율 : 2000-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분포: 2000-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은 2000년에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변화

□ 2015년 직업(소분류)은 경영관련 사무원이 12만 9천 가구(8.1%)로 가장 많고,
매장 판매 종사자 9만 2천 가구(5.8%), 음식서비스종사자 4만 8천 가구(3.0%) 순

미혼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별 상위 5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순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직업	가구수	구성비	직업	가구수	구성비	직업	가구수	구성비	직업	가구수	구성비
1위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48	7.4	경영관련 사무원	90	9.7	경영관련 사무원	120	9.1	경영관련 사무원	129	8.1
2위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33	5.1	매장 판매 종사자	69	7.5	매장 판매 종사자	80	6.1	매장 판매 종사자	92	5.8
3위	계수사무 종사자	28	4.3	음식서비스 종사자	40	4.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6	3.5	음식서비스 종사자	48	3.0
4위	자동차 운전 종사자	19	2.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35	3.8	음식서비스 종사자	35	2.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8	3.0
5위	사무 지원 종사자	18	2.8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2	3.5	영업종사자	33	2.5	주방장 및 조리사	43	2.7

*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은 제5차,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

I. 1인 가구 변화 (전수부문 '00년~'17년)

1. 1인 가구

1인 가구가 2015년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함

-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27.2%로 주된 가구가 되었고,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함
- 일반가구가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하는 동안,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함
 - 1인 가구변화를 성별로 보면
 - 남자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2017년 279만 가구로 195.4% 증가
 - 여자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

< 표 1 >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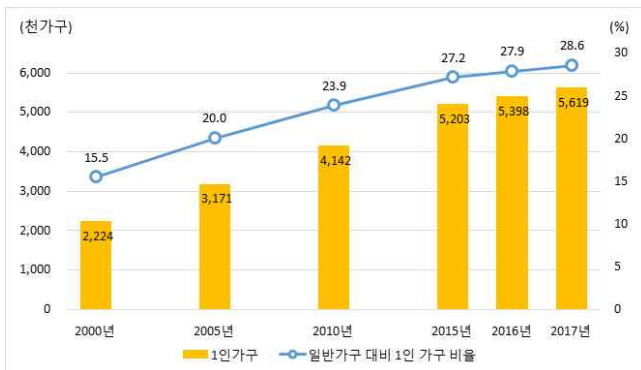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가구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1 (100.0)	19,368 (100.0)	19,674 (100.0)
가구원수	1인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7.2)	5,398 (27.9)	5,619 (28.6)
	2인	2,731 (19.1)	3,521 (22.2)	4,205 (24.3)	4,994 (26.1)	5,067 (26.2)	5,260 (26.7)
	3인	2,987 (20.9)	3,325 (20.9)	3,696 (21.3)	4,101 (21.5)	4,152 (21.4)	4,179 (21.2)
	4인	4,447 (31.1)	4,289 (27.0)	3,898 (22.5)	3,589 (18.8)	3,551 (18.3)	3,474 (17.7)
	5인 이상	1,922 (13.4)	1,582 (10.0)	1,398 (8.1)	1,224 (6.4)	1,200 (6.2)	1,142 (5.8)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제외 :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특별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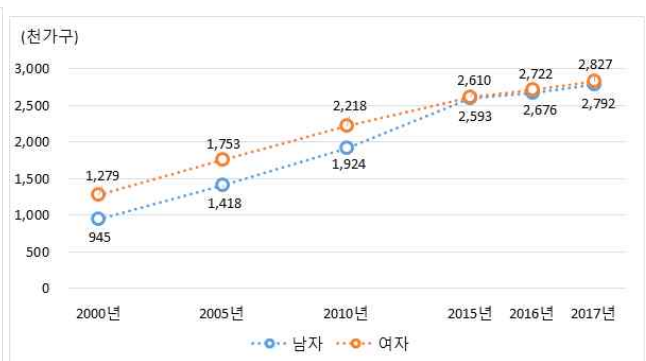
□ 일반가구의 가구원대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 2000년 5.0%에서 2017년 11.6%로 6.6%p 증가하였으며,
- 남자는 2000년 4.3%에서 2017년 11.6%로 7.3%p 증가
- 여자는 2000년 5.6%에서 2017년 11.5%로 5.9%p 증가

[1인 가구 변화 추이 : 2000-2017년]



[1인 가구 성별 변화 추이 : 2000-2017년]



< 표 2 > 일반가구 가구원 및 1인 가구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가구원(B)	44,712	45,737	46,651	48,340	48,551	48,615
남자	22,022	22,438	22,812	23,805	23,919	23,973
여자	22,690	23,299	23,839	24,535	24,633	24,642
1인 가구(A)	2,224	3,171	4,142	5,203	5,398	5,619
남자	945	1,418	1,924	2,593	2,676	2,792
여자	1,279	1,753	2,218	2,610	2,722	2,827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 비율 [(A/B)*100]	5.0	6.9	8.9	10.8	11.1	11.6
남자	4.3	6.3	8.4	10.9	11.2	11.6
여자	5.6	7.5	9.3	10.6	11.1	11.5

< 표 4 > 일반가구원 대비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0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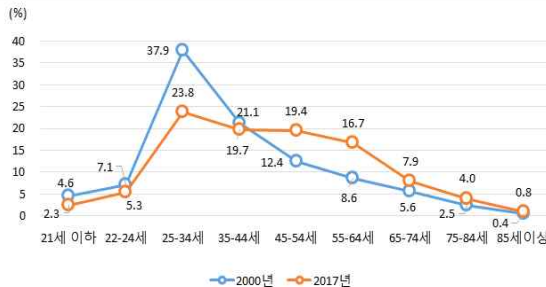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0~14세 0.0			31세	8.5	3.9	51세	4.5	5.3	71세	6.5	25.5
			32세	7.4	3.7	52세	4.4	5.5	72세	6.5	26.1
			33세	6.9	3.6	53세	4.4	5.9	73세	6.7	26.4
			34세	6.3	3.6	54세	4.4	6.4	74세	7.2	26.6
15세	0.1	0.1	35세	5.9	3.5	55세	4.6	7.1	75세	7.1	26.7
16세	0.3	0.4	36세	5.4	3.5	56세	4.4	7.5	76세	7.4	26.5
17세	0.6	0.6	37세	5.2	3.4	57세	4.6	8.4	77세	7.5	26.3
18세	1.7	1.5	38세	4.8	3.5	58세	4.5	9.4	78세	7.9	25.2
19세	3.7	3.5	39세	4.9	3.6	59세	4.5	10.1	79세	8.0	25.2
20세	4.1	4.9	40세	4.5	3.7	60세	4.4	11.0	80세	8.3	23.1
21세	4.6	5.7	41세	4.5	3.8	61세	4.4	12.3	81세	8.6	21.7
22세	5.3	6.6	42세	4.4	3.9	62세	4.5	13.3	82세	8.5	20.1
23세	7.5	7.1	43세	4.3	4.0	63세	4.5	14.4	83세	8.6	19.2
24세	8.8	7.3	44세	4.6	4.2	64세	4.7	15.8	84세	8.5	17.6
25세	9.6	7.0	45세	4.2	4.2	65세	4.7	17.5	85세	8.5	16.6
26세	10.3	6.5	46세	4.4	4.4	66세	4.9	19.0	86세	8.2	15.5
27세	10.7	5.8	47세	4.7	4.6	67세	5.2	20.0	87세	7.8	13.5
28세	10.6	5.1	48세	4.3	4.4	68세	5.2	21.6	88세	7.8	12.8
29세	10.0	4.5	49세	4.5	4.7	69세	5.9	23.7	89세	8.4	11.6
30세	9.3	4.2	50세	4.5	5.0	70세	5.9	24.6	90세 +	7.6	8.8

□ 1인 가구를 성별·연령대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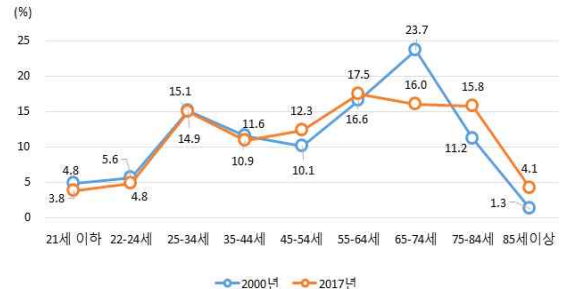
- 남자는 25~34세 비율이 2000년에는 37.9%에서 2017년 23.8%로 감소하였고,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였음
- 여자는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65~74세의 비중은 2000년 23.7%에서 2017년 16.0%로 감소함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 : 2000년, 2017년]

남자



여자



< 표 5 > 1인 가구의 성별·연령대별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합계	21세 이하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체	2,224 (100.0)	105 (4.7)	138 (6.2)	551 (24.8)	348 (15.6)	246 (11.1)	293 (13.2)	356 (16.0)	167 (7.5)	21 (0.9)
	남	945 (100.0)	43 (4.6)	67 (7.1)	358 (37.9)	199 (21.1)	117 (12.4)	81 (8.6)	53 (5.6)	24 (2.5)	4 (0.4)
	여	1,279 (100.0)	61 (4.8)	71 (5.6)	193 (15.1)	149 (11.6)	129 (10.1)	212 (16.6)	303 (23.7)	143 (11.2)	17 (1.3)
2005년	전체	3,171 (100.0)	111 (3.5)	201 (6.3)	774 (24.4)	502 (15.8)	427 (13.5)	372 (11.7)	472 (14.9)	274 (8.6)	36 (1.1)
	남	1,418 (100.0)	45 (3.2)	96 (6.8)	484 (34.1)	310 (21.9)	223 (15.7)	127 (9.0)	88 (6.2)	39 (2.8)	6 (0.4)
	여	1,753 (100.0)	66 (3.8)	105 (6.0)	290 (16.5)	192 (11.0)	204 (11.6)	245 (14.0)	384 (21.9)	235 (13.4)	30 (1.7)
2010년	전체	4,142 (100.0)	123 (3.0)	197 (4.8)	918 (22.2)	678 (16.4)	638 (15.4)	522 (12.6)	573 (13.8)	419 (10.1)	74 (1.8)
	남	1,924 (100.0)	50 (2.6)	102 (5.3)	554 (28.8)	432 (22.5)	356 (18.5)	214 (11.1)	138 (7.2)	66 (3.4)	13 (0.7)
	여	2,218 (100.0)	74 (3.3)	95 (4.3)	364 (16.4)	246 (11.1)	282 (12.7)	308 (13.9)	435 (19.6)	354 (16.0)	61 (2.8)
2015년	전체	5,203 (100.0)	158 (3.0)	268 (5.2)	1,053 (20.2)	849 (16.3)	852 (16.4)	801 (15.4)	622 (12.0)	485 (9.3)	115 (2.2)
	남	2,593 (100.0)	62 (2.4)	145 (5.6)	645 (24.9)	548 (21.1)	517 (19.9)	378 (14.6)	189 (7.3)	91 (3.5)	19 (0.7)
	여	2,610 (100.0)	96 (3.7)	122 (4.7)	408 (15.6)	301 (11.5)	335 (12.8)	424 (16.2)	434 (16.6)	395 (15.1)	97 (3.7)
2016년	전체	5,398 (100.0)	172 (3.2)	282 (5.2)	1,057 (19.6)	838 (15.5)	864 (16.0)	889 (16.5)	647 (12.0)	520 (9.6)	128 (2.4)
	남	2,676 (100.0)	67 (2.5)	152 (5.7)	647 (24.2)	538 (20.1)	523 (19.5)	424 (15.8)	204 (7.6)	101 (3.8)	20 (0.7)
	여	2,722 (100.0)	106 (3.9)	130 (4.8)	411 (15.1)	299 (11.0)	341 (12.5)	466 (17.1)	443 (16.3)	419 (15.4)	108 (4.0)
2017년	전체	5,619 (100.0)	172 (3.1)	283 (5.0)	1,085 (19.3)	859 (15.3)	890 (15.8)	959 (17.1)	673 (12.0)	560 (10.0)	138 (2.5)
	남	2,792 (100.0)	65 (2.3)	147 (5.3)	665 (23.8)	551 (19.7)	542 (19.4)	465 (16.7)	221 (7.9)	112 (4.0)	23 (0.8)
	여	2,827 (100.0)	107 (3.8)	135 (4.8)	421 (14.9)	308 (10.9)	348 (12.3)	494 (17.5)	452 (16.0)	447 (15.8)	11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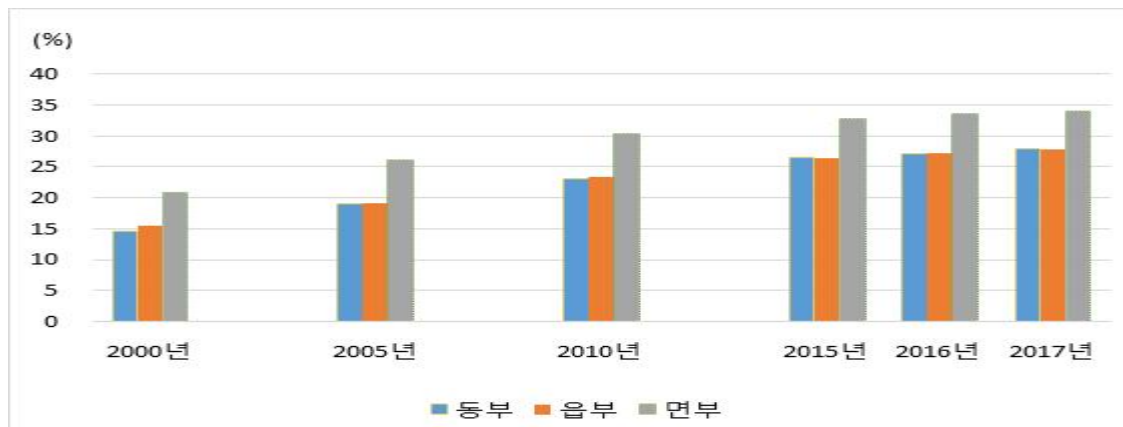
3. 지역별

동지역의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읍지역보다 높아짐

□ 동읍면부별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 고령화비율이 높은 면지역에서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20.9%에서 2017년 3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동지역도 2000년 14.6%에서 2017년 28.0%로 증가하여 읍지역보다 높아짐
 - 동 부 : 14.6%('00년) → 23.1%('10년) → 26.6%('15년) → 28.0%('17년)
 - 읍 부 : 15.5%('00년) → 23.3%('10년) → 26.4%('15년) → 27.8%('17년)
 - 면 부 : 20.9%('00년) → 30.3%('10년) → 32.7%('15년) → 34.0%('17년)

[동읍면부별 1인 가구 비율 변화 추이 :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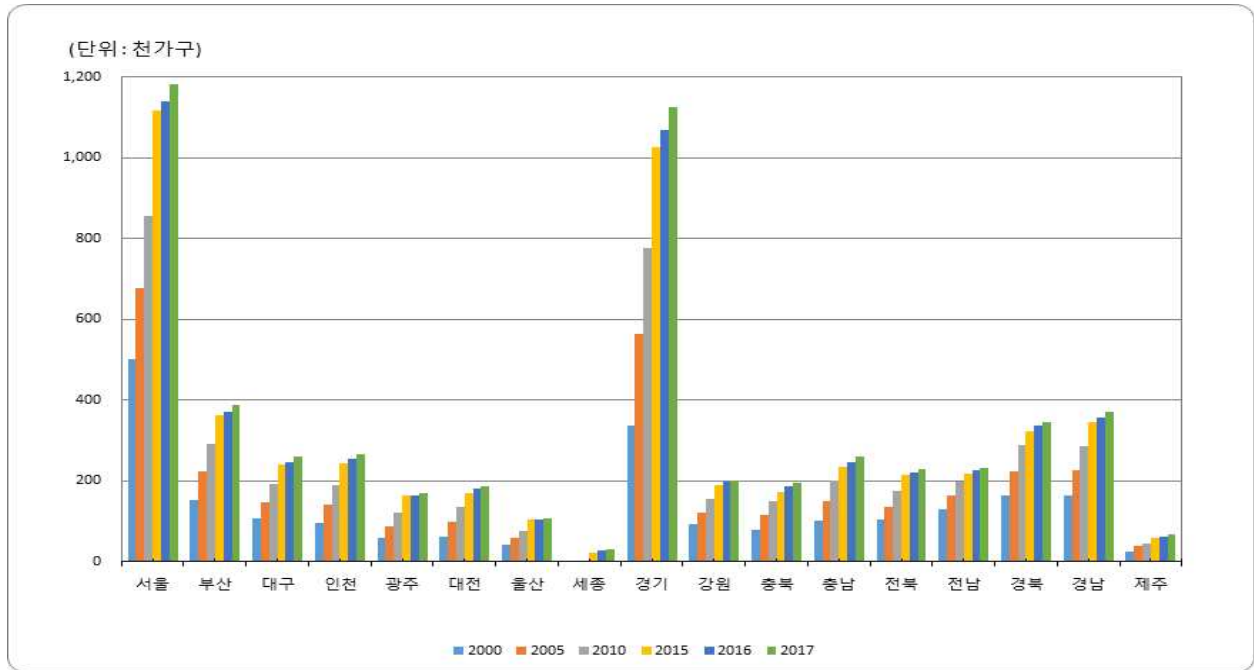
-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비율이 30%이상인 지역은 2015년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었으나, 2017년에는 9개 지역(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증가
-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2000년 15.2%에서 2017년 31.5%로 16.3%p 증가하였고, 다음은 광주(15.1%p), 부산(14.9%p), 서울(14.7%p)순임
- 2017년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강원(32.2%)이 가장 높고 이어 경북(31.9%), 전남(31.6%)순으로 나타남

< 표 6 > 시도별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1인 가구
전국	14,312 (100.0)	2,224 (15.5)	15,887 (100.0)	3,171 (20.0)	17,339 (100.0)	4,142 (23.9)	19,111 (100.0)	5,203 (27.2)	19,368 (100.0)	5,398 (27.9)	19,674 (100.0)	5,619 (28.6)
동부	11,229 (100.0)	1,643 (14.6)	12,745 (100.0)	2,440 (19.1)	14,031 (100.0)	3,244 (23.1)	15,488 (100.0)	4,125 (26.6)	15,662 (100.0)	4,263 (27.2)	15,881 (100.0)	4,442 (28.0)
읍부	1,160 (100.0)	180 (15.5)	1,319 (100.0)	253 (19.2)	1,487 (100.0)	347 (23.3)	1,696 (100.0)	448 (26.4)	1,747 (100.0)	477 (27.3)	1,799 (100.0)	499 (27.8)
면부	1,922 (100.0)	401 (20.9)	1,823 (100.0)	478 (26.2)	1,821 (100.0)	552 (30.3)	1,928 (100.0)	630 (32.7)	1,959 (100.0)	657 (33.6)	1,994 (100.0)	677 (34.0)
서울	3,086 (100.0)	502 (16.3)	3,310 (100.0)	676 (20.4)	3,504 (100.0)	855 (24.4)	3,784 (100.0)	1,116 (29.5)	3,785 (100.0)	1,139 (30.1)	3,813 (100.0)	1,181 (31.0)
부산	1,120 (100.0)	154 (13.8)	1,186 (100.0)	223 (18.8)	1,244 (100.0)	291 (23.4)	1,336 (100.0)	362 (27.1)	1,344 (100.0)	372 (27.7)	1,354 (100.0)	389 (28.7)
대구	759 (100.0)	108 (14.2)	815 (100.0)	148 (18.2)	868 (100.0)	192 (22.1)	929 (100.0)	240 (25.8)	936 (100.0)	247 (26.4)	948 (100.0)	260 (27.4)
인천	747 (100.0)	97 (13.0)	823 (100.0)	142 (17.3)	919 (100.0)	191 (20.8)	1,045 (100.0)	244 (23.3)	1,063 (100.0)	254 (23.9)	1,080 (100.0)	266 (24.7)
광주	409 (100.0)	60 (14.7)	460 (100.0)	87 (18.9)	516 (100.0)	123 (23.8)	567 (100.0)	164 (28.9)	569 (100.0)	165 (29.0)	576 (100.0)	171 (29.8)
대전	414 (100.0)	63 (15.2)	479 (100.0)	99 (20.7)	533 (100.0)	135 (25.3)	583 (100.0)	169 (29.0)	591 (100.0)	180 (30.4)	598 (100.0)	188 (31.5)
울산	307 (100.0)	43 (14.0)	339 (100.0)	58 (17.1)	374 (100.0)	77 (20.6)	423 (100.0)	104 (24.6)	426 (100.0)	105 (24.6)	429 (100.0)	107 (25.1)
세종	- -	- -	- -	- -	- -	- -	75 (100.0)	22 (29.3)	90 (100.0)	28 (30.6)	104 (100.0)	31 (30.2)
경기	2,669 (100.0)	338 (12.7)	3,329 (100.0)	563 (16.9)	3,831 (100.0)	777 (20.3)	4,385 (100.0)	1,026 (23.4)	4,484 (100.0)	1,068 (23.8)	4,603 (100.0)	1,125 (24.4)
강원	487 (100.0)	92 (18.9)	521 (100.0)	122 (23.4)	558 (100.0)	155 (27.8)	606 (100.0)	189 (31.2)	616 (100.0)	198 (32.1)	621 (100.0)	200 (32.2)
충북	461 (100.0)	79 (17.1)	505 (100.0)	115 (22.8)	559 (100.0)	150 (26.8)	602 (100.0)	174 (28.9)	618 (100.0)	187 (30.3)	629 (100.0)	195 (31.0)
충남	589 (100.0)	101 (17.1)	660 (100.0)	149 (22.6)	749 (100.0)	202 (27.0)	796 (100.0)	235 (29.5)	814 (100.0)	247 (30.4)	835 (100.0)	260 (31.1)
전북	602 (100.0)	105 (17.4)	620 (100.0)	137 (22.1)	660 (100.0)	175 (26.5)	717 (100.0)	214 (29.8)	725 (100.0)	222 (30.7)	729 (100.0)	228 (31.2)
전남	664 (100.0)	131 (19.7)	666 (100.0)	164 (24.6)	681 (100.0)	197 (28.9)	721 (100.0)	219 (30.4)	727 (100.0)	227 (31.2)	734 (100.0)	232 (31.6)
경북	888 (100.0)	164 (18.5)	939 (100.0)	225 (24.0)	1,005 (100.0)	290 (28.9)	1,063 (100.0)	323 (30.4)	1,077 (100.0)	337 (31.3)	1,088 (100.0)	347 (31.9)
경남	951 (100.0)	163 (17.1)	1,056 (100.0)	226 (21.4)	1,151 (100.0)	286 (24.8)	1,258 (100.0)	347 (27.6)	1,274 (100.0)	358 (28.1)	1,293 (100.0)	370 (28.6)
제주	158 (100.0)	26 (16.5)	179 (100.0)	39 (21.8)	187 (100.0)	45 (24.1)	220 (100.0)	58 (26.4)	229 (100.0)	63 (27.4)	240 (100.0)	69 (28.6)

[시도별 1인 가구의 분포 :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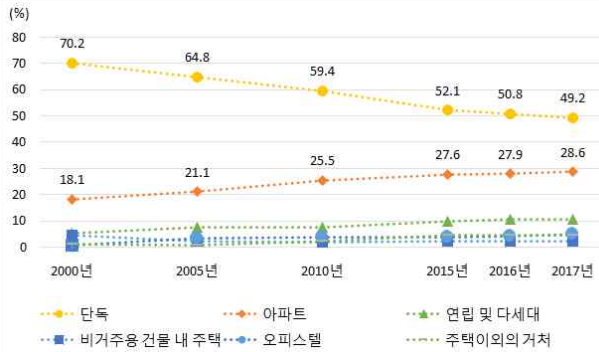
4.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처는 「단독주택」이나, 그 거주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거주비율은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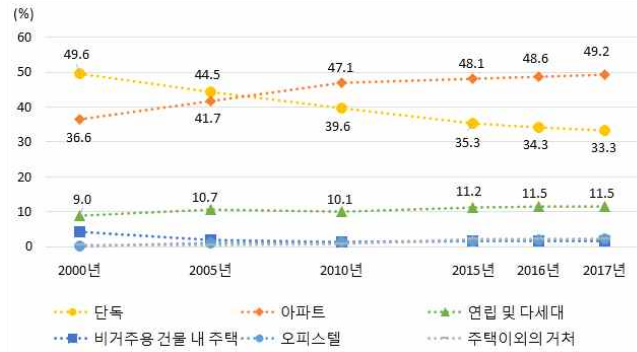
- 2000년에 1인 가구의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9.2%로 나타났음
 - 「아파트」 거주비율은 2000년 18.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 28.6%로 30%에 근접해졌음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거처종류별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면
 -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2000년 70.2%에서 2017년 49.2%로 21.0%p 감소하여 같은 기간 일반가구 16.3%p 감소보다 감소 폭이 큼
 - 1인 가구 70.2%('00년) → 64.8%('05년) → 59.4%('10년) → 49.2%('17년)
 - 일반 가구 49.6%('00년) → 44.5%('05년) → 39.6%('10년) → 33.3%('17년)
 - 「아파트」 거주비율은 2000년 18.1%에서 2017년 28.6%로 10.5%p 증가하여 일반가구 12.6%p 증가보다는 증가 폭이 작음
 - 1인 가구 18.1%('00년) → 21.1%('05년) → 25.5%('10년) → 28.6%('17년)
 - 일반 가구 36.6%('00년) → 41.7%('05년) → 47.1%('10년) → 49.2%('17년)
 -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비율은 2000년 5.3%에서 2017년 10.6%로 5.3%p 증가하여 일반가구 2.5%p 증가보다 증가 폭이 큼
 - 1인 가구 5.3%('00년) → 7.4%('05년) → 7.7%('10년) → 10.6%('17년)
 - 일반 가구 9.0%('00년) → 10.7%('05년) → 10.1%('10년) → 11.5%('17년)
 -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7년 4.8%로 4.1%p 증가하여 일반가구 2.1%p 증가보다 증가 폭이 큼
 - 1인 가구 0.7%('00년) → 3.5%('05년) → 3.7%('10년) → 4.8%('17년)
 - 일반 가구 0.1%('00년) → 1.0%('05년) → 1.3%('10년) → 2.2%('17년)

[거처종류별 비율 : 2000-2017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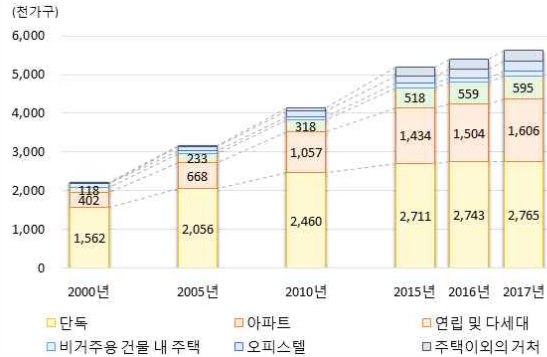


일반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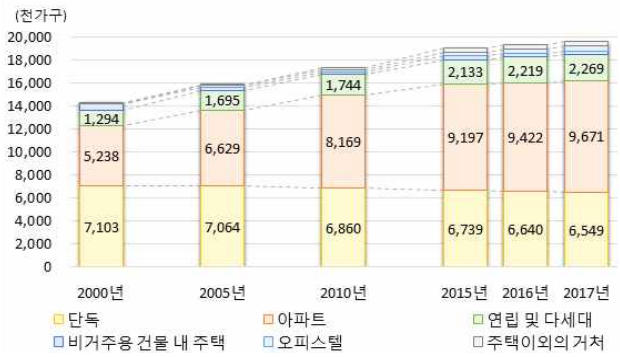


[거처종류별 분포 : 2000-2017년]

1인 가구



일반가구



< 표 7 >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거처의 종류별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의 거처 (오피스텔제외)
1인 가구	2000년	2,224 (100.0)	1,562 (70.2)	402 (18.1)	118 (5.3)	102 (4.6)	15 (0.7)
	2005년	3,171 (100.0)	2,056 (64.8)	668 (21.1)	233 (7.4)	75 (2.4)	110 (3.5)
	2010년	4,142 (100.0)	2,460 (59.4)	1,057 (25.5)	318 (7.7)	69 (1.7)	152 (3.7)
	2015년	5,203 (100.0)	2,711 (52.1)	1,434 (27.6)	518 (10.0)	121 (2.3)	190 (3.7)
	2016년	5,398 (100.0)	2,743 (50.8)	1,504 (27.9)	559 (10.4)	116 (2.2)	225 (4.2)
	2017년	5,619 (100.0)	2,765 (49.2)	1,606 (28.6)	595 (10.6)	123 (2.2)	268 (4.8)
일반 가구	2000년	14,312 (100.0)	7,103 (49.6)	5,238 (36.6)	1,294 (9.0)	593 (4.1)	21 (0.1)
	2005년	15,887 (100.0)	7,064 (44.5)	6,629 (41.7)	1,695 (10.7)	282 (1.8)	160 (1.0)
	2010년	17,339 (100.0)	6,860 (39.6)	8,169 (47.1)	1,744 (10.1)	212 (1.2)	225 (1.3)
	2015년	19,111 (100.0)	6,739 (35.3)	9,197 (48.1)	2,133 (11.2)	328 (1.7)	320 (1.7)
	2016년	19,368 (100.0)	6,640 (34.3)	9,422 (48.6)	2,219 (11.5)	316 (1.6)	367 (1.9)
	2017년	19,674 (100.0)	6,549 (33.3)	9,671 (49.2)	2,269 (11.5)	327 (1.7)	428 (2.2)

「아파트」 거주 비율이 2000년은 25~54세 연령대에서만 20%이상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세 이상 전체 연령대로 넓어짐

□ 2000년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60%이상이었으나, 2015년 35~64세 연령대가 50%이하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50%이하인 연령대가 25~74세로 확대됨

□ 1인 가구의 거주종류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 (단독주택)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20.0%p 이상 감소함

· 2000년 55~64세(70.7%), 65~74세(78.6%), 75~84세(83.8%), 85세 이상(85.4%)

· 2017년 55~64세(46.9%), 65~74세(48.7%), 75~84세(53.6%), 85세 이상(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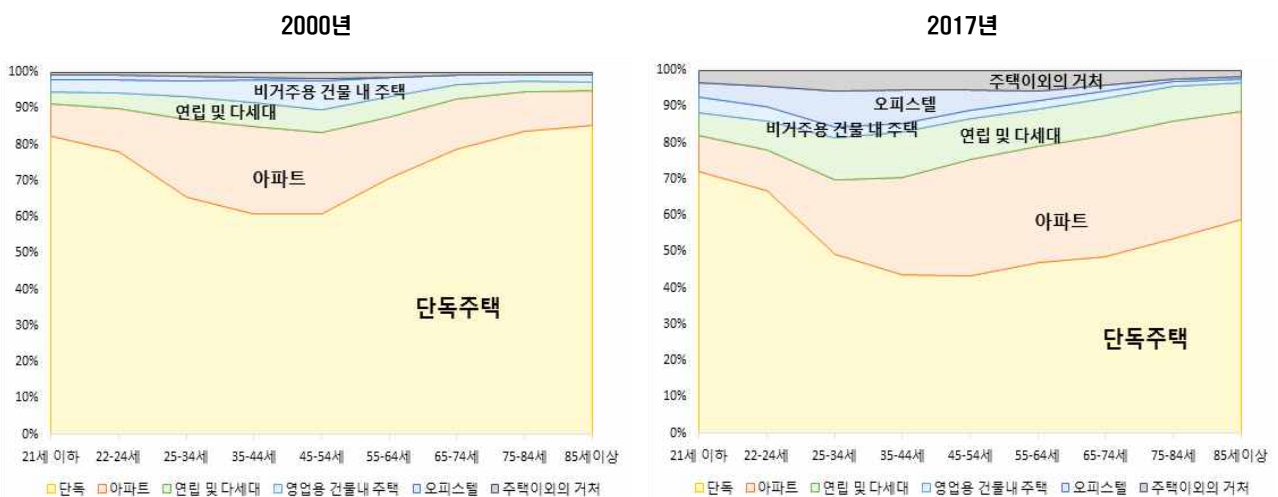
○ (아파트) 22~24세에서 0.6%p, 25~34세에서 1.2%p 감소한 것 외에는 다른 연령대는 증가하였는데,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15.0%p이상 증가함

· 2000년 55~64세(16.9%), 65~74세(14.1%), 75~84세(10.8%), 85세 이상(9.3%)

· 2017년 55~64세(32.1%), 65~74세(33.3%), 75~84세(32.3%), 85세 이상(29.7%)

○ (연립·다세대) 2000년 대비 2015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3.0~6.8%p 증가함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거주종류별 비율 : 2000년, 2017년]



< 표 8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거처 종류별 변화 추이 (2000-2017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21세 이하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 체	2,224 (100.0)	105 (100.0)	138 (100.0)	551 (100.0)	348 (100.0)	246 (100.0)	293 (100.0)	356 (100.0)	167 (100.0)	21 (100.0)
	단독주택	(70.2)	(82.3)	(78.0)	(65.5)	(60.9)	(61.0)	(70.7)	(78.6)	(83.8)	(85.4)
	아파트	(18.1)	(8.9)	(11.9)	(21.6)	(24.0)	(22.4)	(16.9)	(14.1)	(10.8)	(9.3)
	연립 및 다세대	(5.3)	(3.3)	(4.3)	(6.2)	(6.6)	(6.5)	(5.6)	(3.8)	(2.8)	(2.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6)	(3.5)	(3.7)	(4.4)	(6.2)	(7.8)	(5.2)	(2.7)	(1.9)	(1.8)
	오피스텔	(0.7)	(1.1)	(1.2)	(1.4)	(0.9)	(0.5)	(0.1)	(0.0)	(0.0)	(0.1)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1.1)	(0.9)	(0.9)	(1.0)	(1.4)	(1.9)	(1.4)	(0.7)	(0.7)	(0.8)
2005년	전 체	3,171 (100.0)	111 (100.0)	201 (100.0)	774 (100.0)	502 (100.0)	427 (100.0)	372 (100.0)	472 (100.0)	274 (100.0)	36 (100.0)
	단독주택	(64.8)	(77.9)	(73.7)	(60.2)	(56.8)	(58.7)	(63.3)	(72.1)	(77.8)	(81.9)
	아파트	(21.1)	(7.8)	(10.2)	(21.0)	(26.6)	(26.3)	(23.8)	(19.6)	(16.3)	(13.0)
	연립 및 다세대	(7.4)	(5.0)	(6.4)	(8.5)	(8.6)	(8.0)	(8.1)	(6.0)	(4.2)	(3.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4)	(2.7)	(2.3)	(2.2)	(2.8)	(3.6)	(2.9)	(1.4)	(0.9)	(0.8)
	오피스텔	(3.5)	(5.7)	(6.6)	(7.4)	(4.2)	(2.0)	(0.6)	(0.2)	(0.2)	(0.2)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0.9)	(0.9)	(0.8)	(0.7)	(1.0)	(1.4)	(1.3)	(0.7)	(0.5)	(0.7)
2010년	전 체	4,142 (100.0)	123 (100.0)	197 (100.0)	918 (100.0)	678 (100.0)	638 (100.0)	522 (100.0)	573 (100.0)	419 (100.0)	74 (100.0)
	단독주택	(59.4)	(76.0)	(72.9)	(57.1)	(50.6)	(54.6)	(55.7)	(63.5)	(70.8)	(75.5)
	아파트	(25.5)	(6.9)	(9.0)	(22.2)	(31.5)	(30.5)	(30.9)	(26.3)	(22.2)	(18.4)
	연립 및 다세대	(7.7)	(4.1)	(4.9)	(8.0)	(8.9)	(8.3)	(8.9)	(7.8)	(5.4)	(4.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	(2.0)	(1.8)	(1.7)	(1.7)	(2.2)	(2.1)	(1.3)	(0.8)	(0.8)
	오피스텔	(3.7)	(4.9)	(6.4)	(8.1)	(5.4)	(2.4)	(0.9)	(0.3)	(0.3)	(0.3)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2.1)	(6.1)	(5.0)	(3.0)	(1.9)	(2.0)	(1.6)	(0.9)	(0.6)	(0.7)
2015년	전 체	5,203 (100.0)	158 (100.0)	425 (100.0)	1,321 (100.0)	1,902 (100.0)	1,701 (100.0)	1,653 (100.0)	1,424 (100.0)	1,108 (100.0)	601 (100.0)
	단독주택	(52.1)	(72.0)	(67.9)	(52.1)	(46.8)	(47.0)	(49.9)	(51.7)	(57.0)	(62.1)
	아파트	(27.6)	(10.8)	(11.7)	(20.8)	(27.0)	(30.9)	(30.8)	(31.8)	(30.0)	(27.3)
	연립 및 다세대	(10.0)	(7.0)	(8.3)	(11.3)	(11.6)	(10.4)	(9.6)	(9.7)	(8.7)	(7.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3)	(3.8)	(3.8)	(3.1)	(2.7)	(2.4)	(2.3)	(1.9)	(1.3)	(1.0)
	오피스텔	(3.7)	(3.0)	(4.1)	(7.1)	(6.8)	(4.2)	(2.2)	(1.1)	(0.7)	(0.6)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4.4)	(3.3)	(4.3)	(5.5)	(5.2)	(5.1)	(5.1)	(3.7)	(2.2)	(1.9)
2016년	전 체	5,398 (100.0)	172 (100.0)	454 (100.0)	1,339 (100.0)	1,895 (100.0)	1,702 (100.0)	1,754 (100.0)	1,536 (100.0)	1,167 (100.0)	648 (100.0)
	단독주택	(50.8)	(73.4)	(68.7)	(51.1)	(45.2)	(45.3)	(48.3)	(50.2)	(55.4)	(60.3)
	아파트	(27.9)	(9.5)	(10.9)	(20.6)	(26.9)	(31.1)	(31.4)	(32.5)	(31.0)	(28.2)
	연립 및 다세대	(10.4)	(6.2)	(7.7)	(11.5)	(12.1)	(11.1)	(10.2)	(10.2)	(9.3)	(7.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2)	(4.1)	(3.8)	(3.0)	(2.5)	(2.1)	(2.1)	(1.8)	(1.2)	(1.0)
	오피스텔	(4.2)	(3.1)	(4.6)	(8.4)	(8.0)	(4.9)	(2.5)	(1.3)	(0.7)	(0.6)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4.7)	(3.7)	(4.3)	(5.5)	(5.4)	(5.5)	(5.5)	(4.0)	(2.3)	(2.2)
2017년	전 체	5,619 (100.0)	172 (100.0)	455 (100.0)	1,368 (100.0)	1,945 (100.0)	1,749 (100.0)	1,849 (100.0)	1,632 (100.0)	1,233 (100.0)	698 (100.0)
	단독주택	(49.2)	(72.0)	(66.8)	(49.3)	(43.6)	(43.5)	(46.9)	(48.7)	(53.6)	(58.9)
	아파트	(28.6)	(10.2)	(11.3)	(20.4)	(27.0)	(32.0)	(32.1)	(33.3)	(32.3)	(29.7)
	연립 및 다세대	(10.6)	(6.3)	(7.9)	(11.7)	(12.3)	(11.3)	(10.4)	(10.4)	(9.6)	(8.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2)	(4.2)	(4.0)	(3.0)	(2.5)	(2.1)	(2.1)	(1.8)	(1.3)	(1.0)
	오피스텔	(4.8)	(3.9)	(5.6)	(9.7)	(9.2)	(5.6)	(2.8)	(1.5)	(0.9)	(0.7)
	주택이외 거처 (오피스텔 제외)	(4.7)	(3.5)	(4.4)	(5.8)	(5.5)	(5.5)	(5.6)	(4.2)	(2.3)	(1.7)

II. 1인 가구 변화 (표본부문 '00년~'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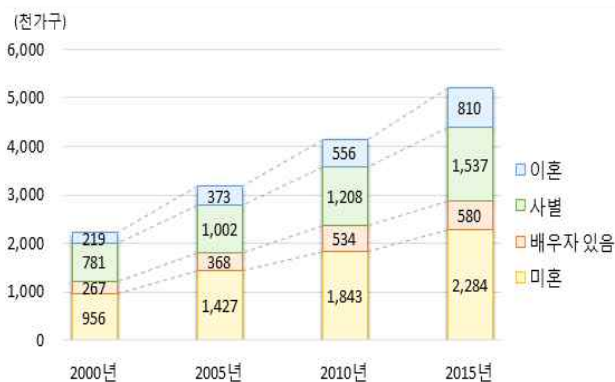
1. 혼인 상태별

1인 가구의 「사별」 비율은 감소하고, 「이혼」 비율은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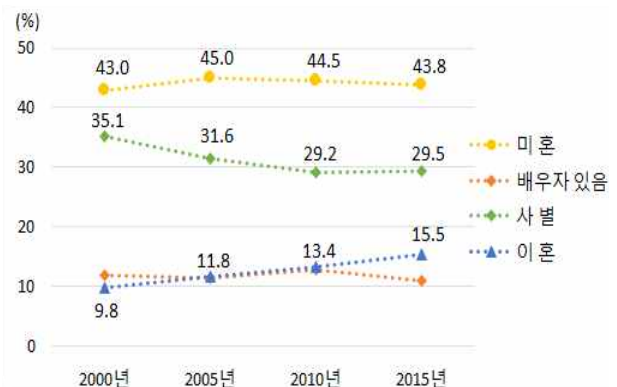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살펴보면

- 「미혼」은 1인 가구의 주된 혼인 상태로 2000년 43.0%에서 2015년 43.8%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혼」은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5.7%p 증가
- 「사별」은 2000년 35.1%에서 2015년 29.5%로 5.6%p 감소
- 「배우자 있음」은 2000년 12.0%에서 2015년 11.1%로 0.9%p 감소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2000-2015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비율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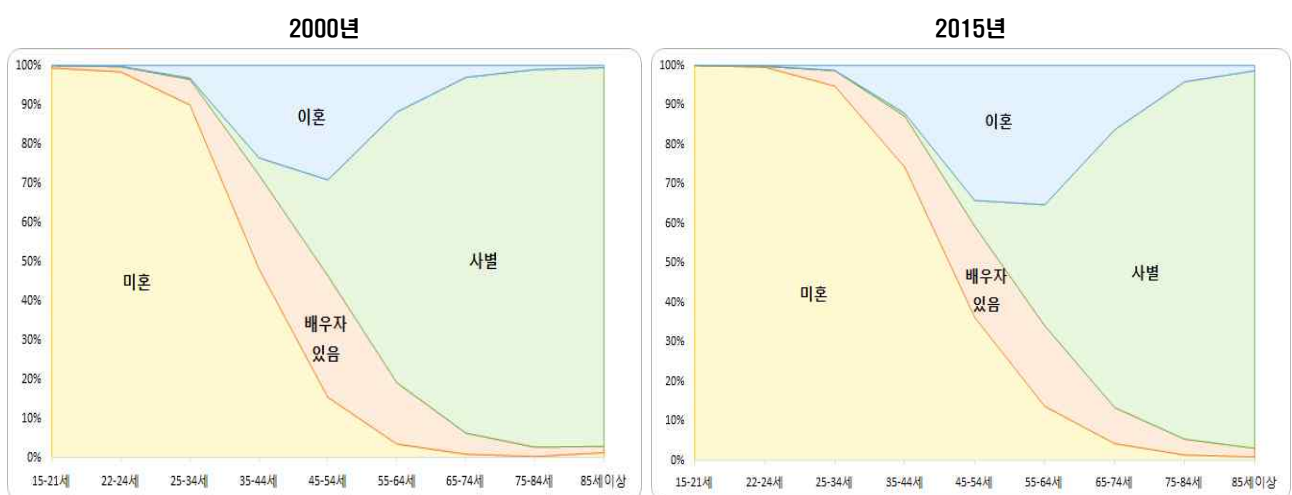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혼인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 (미혼)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미혼 비중은 43~45%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00년에 44세 이하에서 주된 혼인상태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54세 이하에서 주된 혼인상태로 나타남
 - 2000년 25~34세(90.0%), 35~44세(48.3%), 45~54세(15.5%)
 - 2015년 25~34세(94.7%), 35~44세(74.4%), 45~54세(36.3%)

- (사별) 2000년 이후 1인 가구 중 사별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고, 연령대도 축소됨
 - 2000년에는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별이 주된 혼인상태였으나,
 -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별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남
 - 2000년 45~54세(24.4%), 55~64세(68.9%), 65~74세(90.6%), 75~84세(96.1%)
 - 2015년 45~54세(6.5%), 55~64세(30.6%), 65~74세(70.2%), 75~84세(90.3%)
- (이혼) 2000년 이후 1인 가구에서 이혼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고, 45세 이상에서 이혼의 비율이 증가함
 - 2000년은 35~64세 연령대에서 이혼비율이 높고, 특히 45~54세의 이혼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나
 - 2015년에는 4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55~64세의 이혼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00년 35~44세(23.5%), 45~54세(29.1%), 55~64세(11.8%), 65~74세(3.0%)
 - 2015년 35~44세(12.1%), 45~54세(34.1%), 55~64세(35.2%), 65~74세(16.2%)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비율]



< 표 9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 체	2,223 (100.0)	104 (100.0)	138 (100.0)	551 (100.0)	347 (100.0)	246 (100.0)	293 (100.0)	356 (100.0)	167 (100.0)	20 (100.0)
	미 혼	(43.0)	(99.3)	(98.5)	(90.0)	(48.3)	(15.5)	(3.6)	(1.0)	(0.4)	(1.4)
	배우자 있음	(12.0)	(0.6)	(1.3)	(6.5)	(23.9)	(31.0)	(15.6)	(5.4)	(2.4)	(1.6)
	사 별	(35.1)	(0.0)	(0.1)	(0.3)	(4.3)	(24.4)	(68.9)	(90.6)	(96.1)	(96.5)
	이 혼	(9.8)	(0.0)	(0.2)	(3.2)	(23.5)	(29.1)	(11.8)	(3.0)	(1.0)	(0.5)
2005년	전 체	3,170 (100.0)	110 (100.0)	201 (100.0)	774 (100.0)	502 (100.0)	427 (100.0)	372 (100.0)	472 (100.0)	274 (100.0)	36 (100.0)
	미 혼	(45.0)	(99.7)	(99.3)	(92.6)	(57.1)	(19.7)	(5.5)	(1.4)	(0.6)	(0.5)
	배우자 있음	(11.6)	(0.2)	(0.6)	(4.9)	(19.2)	(29.7)	(18.3)	(6.5)	(2.4)	(1.3)
	사 별	(31.6)	(0.0)	(0.0)	(0.1)	(2.2)	(15.7)	(57.1)	(87.4)	(95.8)	(97.7)
	이 혼	(11.8)	(0.1)	(0.1)	(2.4)	(21.6)	(35.0)	(19.1)	(4.7)	(1.2)	(0.5)
2010년	전 체	4,142 (100.0)	123 (100.0)	197 (100.0)	918 (100.0)	678 (100.0)	638 (100.0)	522 (100.0)	573 (100.0)	419 (100.0)	74 (100.0)
	미 혼	(44.5)	(99.8)	(99.4)	(93.5)	(65.8)	(25.0)	(8.4)	(2.2)	(0.8)	(0.6)
	배우자 있음	(12.9)	(0.2)	(0.4)	(4.8)	(16.2)	(28.2)	(22.5)	(10.4)	(4.6)	(3.6)
	사 별	(29.2)	(0.0)	(0.0)	(0.1)	(1.1)	(10.6)	(42.3)	(79.0)	(92.7)	(95.2)
	이 혼	(13.4)	(0.0)	(0.1)	(1.6)	(16.8)	(36.1)	(26.9)	(8.4)	(1.9)	(0.6)
2015년	전 체	5,211 (100.0)	162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미 혼	(43.8)	(99.9)	(99.6)	(94.7)	(74.4)	(36.3)	(13.8)	(4.4)	(1.5)	(1.0)
	배우자 있음	(11.1)	(0.0)	(0.2)	(3.9)	(12.9)	(23.1)	(20.4)	(9.1)	(4.0)	(2.2)
	사 별	(29.5)	(0.0)	(0.1)	(0.1)	(0.7)	(6.5)	(30.6)	(70.2)	(90.3)	(95.5)
	이 혼	(15.5)	(0.0)	(0.1)	(1.2)	(12.1)	(34.1)	(35.2)	(16.2)	(4.1)	(1.3)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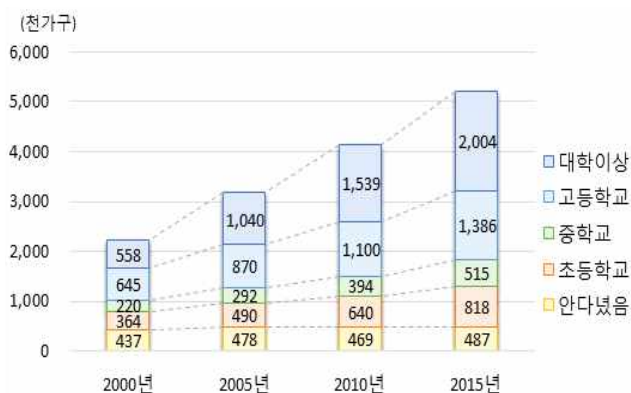
2. 교육정도별

2005년 「대학 이상」이 32.8%로 주된 교육정도가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38.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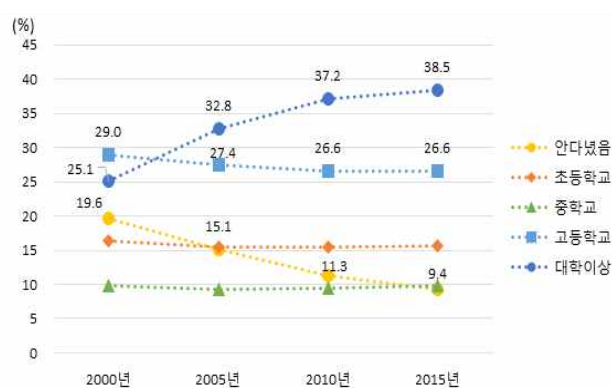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교육정도 변화를 보면

- 「대학이상」 비율은 2000년 25.1%로 고등학교(29.0%)보다 낮았으나, 2005년 32.8%로 고등학교(27.4%)보다 높아 주된 교육정도가 되었음
- 「안다녔음」은 2000년 19.6%에서 2015년 9.4%로 10.2%p 감소
- 「고등학교」는 2000년 29.0%에서 2015년 26.6%로 2.4%p 감소
-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15%, 9%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1인 가구의 교육정도별 분포: 2000-2015년]



[1인 가구의 교육정도별 비율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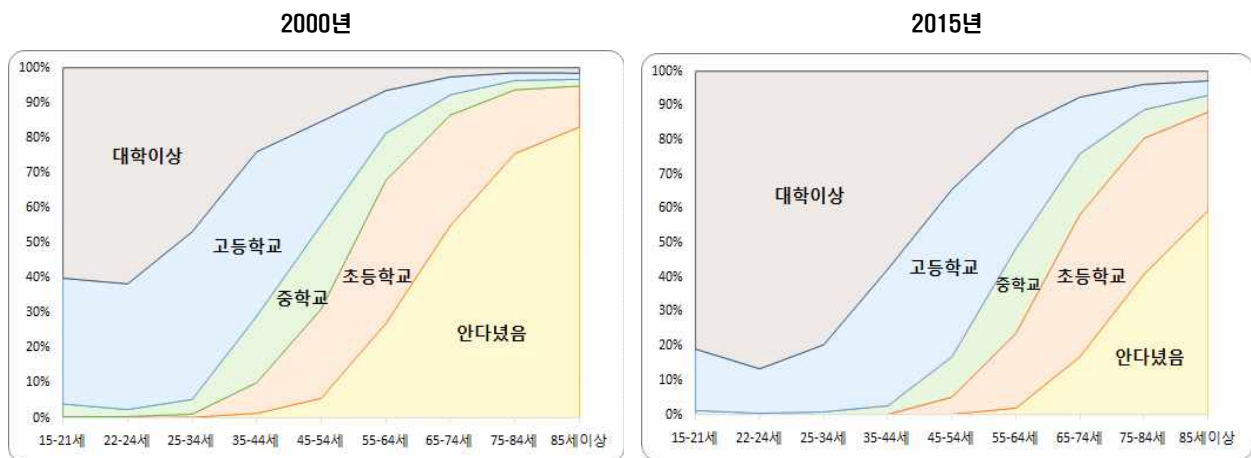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교육정도의 변화를 보면

- (대학이상) 2000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60%이상이 대학이상이었으나,
 - 2015년에는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80%정도가 대학이상으로 나타나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하였음
 - 2000년 15~21세(60.1%), 22~24세(61.7%), 25~34세(46.8%)
 - 2015년 15~21세(80.8%), 22~24세(86.5%), 25~34세(79.7%)

- (안다녔음) 1인 가구의 모든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그 감소 폭이 큼
 -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된 교육정도로 나타났으나,
 - 2015년에는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만 주된 교육정도로 나타남
 - 2000년 65~74세(54.9%), 75~84세(75.5%), 85세 이상(83.0%)
 - 2015년 65~74세(16.9%), 75~84세(40.9%), 85세 이상(59.4%)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교육정도의 비율이 커다란 변화 없이 연령대만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비율 : 2000년, 2015년]



< 표 10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 체	2,223 (100.0)	104 (100.0)	138 (100.0)	551 (100.0)	347 (100.0)	246 (100.0)	293 (100.0)	356 (100.0)	167 (100.0)	20 (100.0)
	안다녔음	(19.6)	(0.1)	(0.1)	(0.2)	(1.3)	(5.6)	(27.0)	(54.9)	(75.5)	(83.0)
	초등학교	(16.4)	(0.3)	(0.3)	(0.9)	(8.8)	(25.5)	(40.9)	(31.6)	(18.2)	(11.7)
	중학교	(9.9)	(3.6)	(2.0)	(4.2)	(19.0)	(24.0)	(13.5)	(5.8)	(2.7)	(1.9)
	고등학교	(29.0)	(35.9)	(35.9)	(47.9)	(46.9)	(29.5)	(12.2)	(5.1)	(2.2)	(1.8)
	대학이상	(25.1)	(60.1)	(61.7)	(46.8)	(24.0)	(15.3)	(6.5)	(2.6)	(1.4)	(1.5)
2005년	전 체	3,170 (100.0)	110 (100.0)	201 (100.0)	774 (100.0)	502 (100.0)	427 (100.0)	372 (100.0)	472 (100.0)	274 (100.0)	36 (100.0)
	안다녔음	(15.1)	(0.1)	(0.1)	(0.2)	(0.7)	(3.0)	(15.4)	(41.6)	(64.9)	(78.0)
	초등학교	(15.4)	(0.2)	(0.2)	(0.3)	(3.6)	(16.5)	(37.9)	(38.3)	(25.6)	(15.8)
	중학교	(9.2)	(1.9)	(1.2)	(1.8)	(10.3)	(23.3)	(19.0)	(8.6)	(4.1)	(2.4)
	고등학교	(27.4)	(24.2)	(24.1)	(34.5)	(50.2)	(37.3)	(18.5)	(7.8)	(3.5)	(2.2)
	대학이상	(32.8)	(73.6)	(74.4)	(63.2)	(35.2)	(19.9)	(9.2)	(3.8)	(1.9)	(1.6)
2010년	전 체	4,142 (100.0)	123 (100.0)	197 (100.0)	918 (100.0)	678 (100.0)	638 (100.0)	522 (100.0)	573 (100.0)	419 (100.0)	74 (100.0)
	안다녔음	(11.3)	(0.1)	(0.1)	(0.1)	(0.3)	(1.5)	(6.5)	(27.9)	(50.7)	(66.5)
	초등학교	(15.4)	(0.1)	(0.1)	(0.2)	(1.1)	(10.3)	(31.0)	(42.3)	(34.1)	(23.9)
	중학교	(9.5)	(1.5)	(0.6)	(1.1)	(4.8)	(19.0)	(23.7)	(12.9)	(6.4)	(3.8)
	고등학교	(26.6)	(18.0)	(14.4)	(24.5)	(47.0)	(43.4)	(26.4)	(11.4)	(5.8)	(3.4)
	대학이상	(37.2)	(80.4)	(84.9)	(74.2)	(46.7)	(25.7)	(12.5)	(5.5)	(3.0)	(2.4)
2015년	전 체	5,211 (100.0)	162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안다녔음	(9.4)	(0.0)	(0.0)	(0.0)	(0.0)	(0.2)	(2.0)	(16.9)	(40.9)	(59.4)
	초등학교	(15.7)	(0.0)	(0.0)	(0.0)	(0.1)	(5.0)	(21.8)	(41.5)	(39.7)	(28.6)
	중학교	(9.9)	(1.1)	(0.4)	(0.7)	(2.6)	(11.7)	(24.7)	(17.7)	(8.3)	(5.1)
	고등학교	(26.6)	(18.1)	(13.0)	(19.5)	(39.7)	(48.8)	(34.8)	(16.4)	(7.4)	(4.4)
	대학이상	(38.5)	(80.8)	(86.5)	(79.7)	(57.6)	(34.4)	(16.7)	(7.4)	(3.7)	(2.6)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 재학, 수료, 휴학, 중퇴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예, 중학교 재학→중학교)

3. 점유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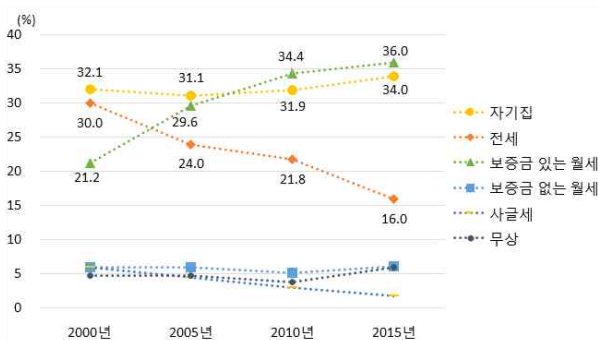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5년에는 「자기 집」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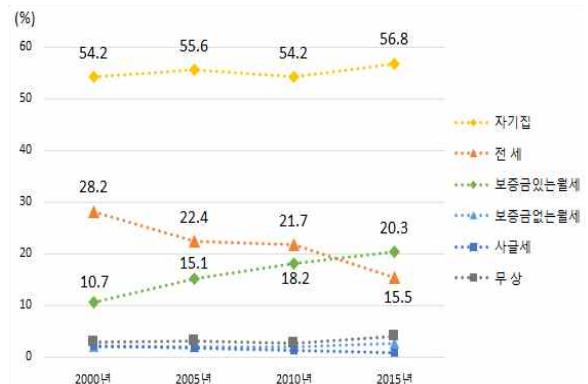
- 「자기 집」인 비율은 1인가구는 30% 이상, 일반가구는 55%내외를 유지함
 - 1인 가구 32.1%('00년) → 31.1%('05년) → 31.9%('10년) → 34.0%('15년)
 - 일반가구 54.2%('00년) → 55.6%('05년) → 54.2%('10년) → 56.8%('15년)
- 「전세」는 2000년 30.0%에서 2015년 16.0%로 14.0%p 감소, 같은 기간 12.7%p 감소한 일반가구보다 감소폭이 큼
 - 1인 가구 30.0%('00년) → 24.0%('05년) → 21.8%('10년) → 16.0%('15년)
 - 일반가구 28.2%('00년) → 22.4%('05년) → 21.7%('10년) → 15.5%('15년)
- 「보증금 있는 월세」는 2000년 21.2%에서 2015년 36.0%로 14.8%p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9.6%p 증가한 일반가구보다 증가폭이 큼
 - 1인 가구 21.2%('00년) → 29.6%('05년) → 34.4%('10년) → 36.0%('15년)
 - 일반가구 10.7%('00년) → 15.1%('05년) → 18.2%('10년) → 20.3%('15년)

[점유형태별 비율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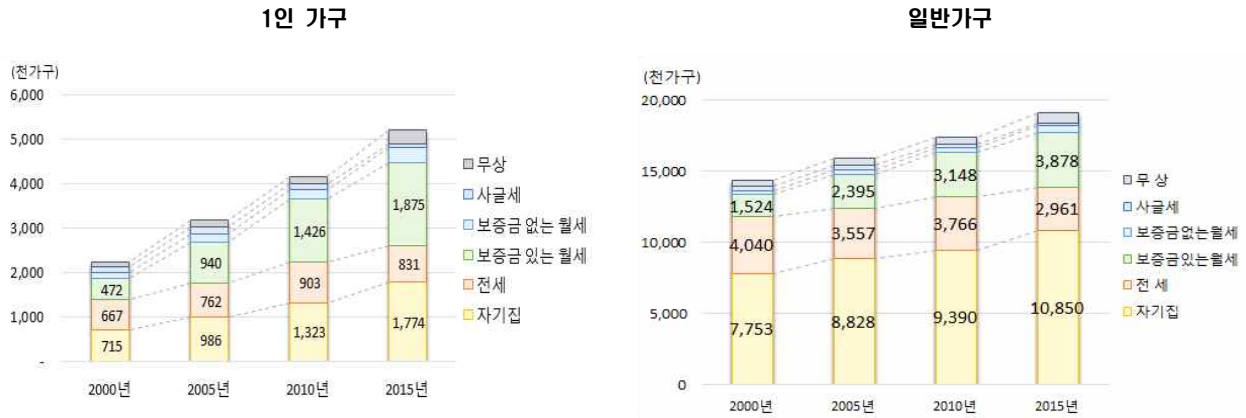
1인 가구



일반가구



[점유형태별 분포 : 2000-2015년]



< 표 11 > 일반가구 및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전체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1인 가구 (15세 이상)	2000년	2,223 (100.0)	715 (32.1)	667 (30.0)	472 (21.2)	133 (6.0)	133 (6.0)	104 (4.7)
	2005년	3,170 (100.0)	986 (31.1)	762 (24.0)	940 (29.6)	189 (6.0)	141 (4.4)	153 (4.8)
	2010년	4,142 (100.0)	1,323 (31.9)	903 (21.8)	1,426 (34.4)	210 (5.1)	124 (3.0)	157 (3.8)
	2015년	5,211 (100.0)	1,774 (34.0)	831 (16.0)	1,875 (36.0)	320 (6.1)	96 (1.8)	315 (6.0)
일반 가구	2000년	14,311 (100.0)	7,753 (54.2)	4,040 (28.2)	1,524 (10.7)	279 (2.0)	310 (2.2)	406 (2.8)
	2005년	15,887 (100.0)	8,828 (55.6)	3,557 (22.4)	2,395 (15.1)	333 (2.1)	284 (1.8)	490 (3.1)
	2010년	17,339 (100.0)	9,390 (54.2)	3,766 (21.7)	3,148 (18.2)	342 (2.0)	230 (1.3)	464 (2.7)
	2015년	19,112 (100.0)	10,850 (56.8)	2,961 (15.5)	3,878 (20.3)	490 (2.6)	161 (0.8)	773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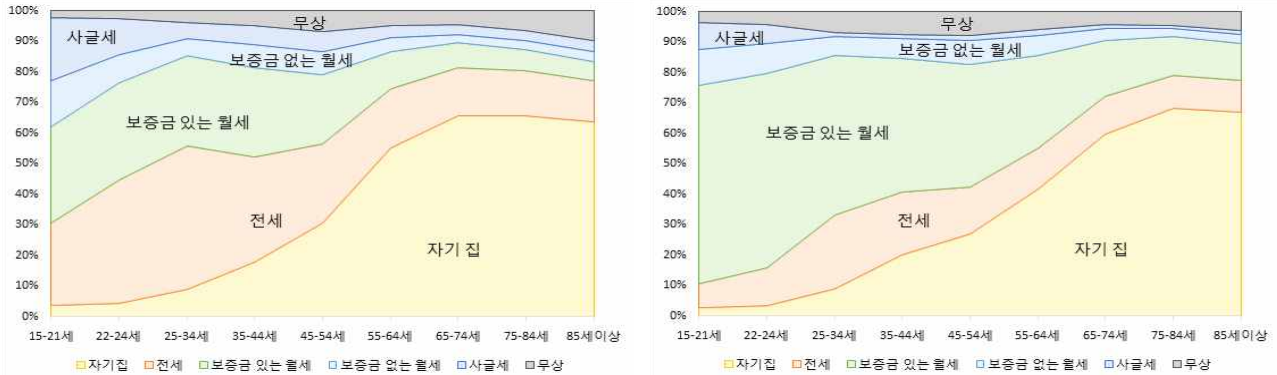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2000년 22~44세 연령대에서 「전세」가 주된 점유형태였으나, 2005년에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

□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 (자기 집) 2000년에 비해 2015년 「자기 집」 거주비율이 75세 이상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45~74세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는데, 특히 55~64세에서 13.4%p 감소함
 - 2000년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로 50% 이상을 차지
 - 2010년 이후 연령층이 상향 이동하여 65세 이상에서 50% 이상을 차지
 - 2000년 55~64세(55.3%), 65~74세(65.5%), 75~84세(65.6%)
 - 2015년 55~64세(41.9%), 65~74세(59.8%), 75~84세(68.1%)
- (전세) 2000년 대비하여 2015년 「전세」 거주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22~34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큼
 - 2000년 22~34세에서는 40% 이상, 35~44세는 34.5%를 차지하여 해당 연령대의 주된 점유형태였으나,
 -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5~44세 연령대에서만 20%대를 유지함
 - 2000년 22~24세(40.5%), 25~34세(46.9%), 35~44세(34.5%)
 - 2015년 22~24세(12.6%), 25~34세(24.2%), 35~44세(20.8%)
- (보증금 있는 월세) 2005년에 54세 이하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4세 이하에서는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2000년에는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20%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22~24세가 31.8%로 가장 높았으나,
 -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이상으로 나타나고, 35~54세 연령대에서도 40%이상으로 나타남
 - 2000년 15~21세(31.5%), 22~24세(31.8%), 25~34세(29.3%)
 - 2015년 15~21세(65.2%), 22~24세(63.8%), 25~34세(52.2%)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 표 12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 체	2,223 (100.0)	104 (100.0)	138 (100.0)	551 (100.0)	347 (100.0)	246 (100.0)	293 (100.0)	356 (100.0)	167 (100.0)	21 (100.0)
	자기 집	(32.1)	(3.6)	(4.3)	(9.1)	(17.7)	(30.7)	(55.3)	(65.5)	(65.6)	(63.6)
	전 세	(30.0)	(27.1)	(40.5)	(46.9)	(34.5)	(25.9)	(19.1)	(16.0)	(15.0)	(13.7)
	보증금 있는 월세	(21.2)	(31.5)	(31.8)	(29.3)	(29.1)	(22.4)	(12.4)	(8.0)	(6.7)	(6.1)
	보증금 없는 월세	(6.0)	(14.9)	(9.0)	(5.7)	(7.5)	(7.8)	(4.4)	(2.8)	(2.9)	(3.2)
	사글세	(6.0)	(20.5)	(11.9)	(5.2)	(6.4)	(6.3)	(4.1)	(3.1)	(3.2)	(3.7)
2005년	무 상	(4.7)	(2.4)	(2.5)	(3.9)	(4.8)	(7.0)	(4.7)	(4.7)	(6.6)	(9.7)
	전 체	3,170 (100.0)	110 (100.0)	201 (100.0)	774 (100.0)	502 (100.0)	427 (100.0)	372 (100.0)	472 (100.0)	274 (100.0)	36 (100.0)
	자기 집	(31.1)	(3.3)	(4.5)	(9.7)	(18.0)	(27.8)	(50.2)	(64.0)	(64.5)	(63.3)
	전 세	(24.0)	(17.2)	(25.9)	(35.5)	(28.2)	(21.7)	(17.5)	(15.2)	(14.8)	(13.0)
	보증금 있는 월세	(29.6)	(48.3)	(48.0)	(41.7)	(37.8)	(30.8)	(18.2)	(10.5)	(9.0)	(8.3)
	보증금 없는 월세	(6.0)	(13.4)	(9.0)	(5.7)	(7.2)	(8.2)	(5.2)	(2.9)	(2.5)	(2.7)
2010년	사글세	(4.4)	(15.6)	(9.9)	(3.4)	(4.1)	(5.1)	(3.8)	(2.6)	(2.7)	(3.0)
	무 상	(4.8)	(2.2)	(2.7)	(4.0)	(4.7)	(6.4)	(5.0)	(4.8)	(6.5)	(9.5)
	전 체	4,142 (100.0)	123 (100.0)	197 (100.0)	918 (100.0)	678 (100.0)	638 (100.0)	522 (100.0)	573 (100.0)	419 (100.0)	74 (100.0)
	자기 집	(31.9)	(3.2)	(3.7)	(10.2)	(19.3)	(27.2)	(45.5)	(61.8)	(65.6)	(64.1)
	전 세	(21.8)	(11.4)	(17.2)	(30.4)	(26.9)	(21.1)	(18.0)	(15.9)	(15.1)	(14.2)
	보증금 있는 월세	(34.4)	(61.3)	(61.2)	(49.3)	(42.2)	(36.3)	(24.2)	(13.9)	(10.9)	(11.0)
2015년	보증금 없는 월세	(5.1)	(11.3)	(8.3)	(4.5)	(5.2)	(6.9)	(5.4)	(3.1)	(2.5)	(2.7)
	사글세	(3.0)	(11.2)	(7.8)	(2.0)	(2.3)	(3.5)	(3.0)	(2.1)	(2.0)	(2.4)
	무 상	(3.8)	(1.6)	(1.8)	(3.6)	(4.0)	(5.0)	(3.9)	(3.2)	(3.9)	(5.7)
	전 체	5,211 (100.0)	162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자기 집	(34.0)	(2.9)	(3.4)	(9.1)	(20.1)	(26.9)	(41.9)	(59.8)	(68.1)	(67.0)
	전 세	(16.0)	(7.8)	(12.6)	(24.2)	(20.8)	(15.5)	(13.4)	(12.4)	(11.1)	(10.5)
2015년	보증금 있는 월세	(36.0)	(65.2)	(63.8)	(52.2)	(43.9)	(40.3)	(30.3)	(18.3)	(12.6)	(12.1)
	보증금 없는 월세	(6.1)	(11.6)	(9.7)	(6.4)	(6.5)	(7.9)	(6.8)	(3.9)	(2.8)	(2.8)
	사글세	(1.8)	(9.0)	(6.2)	(1.3)	(1.2)	(1.7)	(1.7)	(1.3)	(1.0)	(1.3)
	무 상	(6.0)	(3.6)	(4.3)	(6.8)	(7.6)	(7.7)	(6.0)	(4.3)	(4.4)	(6.3)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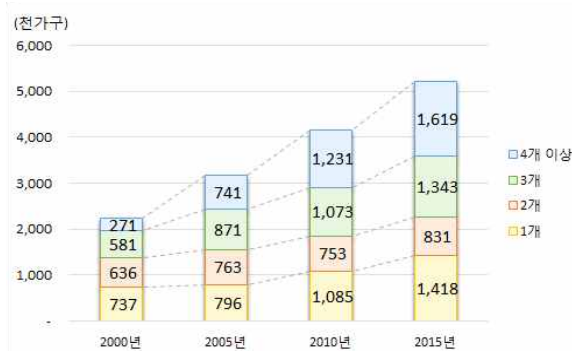
4. 사용방수별

1인 가구 중 사용방수 2개 이하는 감소하였고, 사용방수 4개 이상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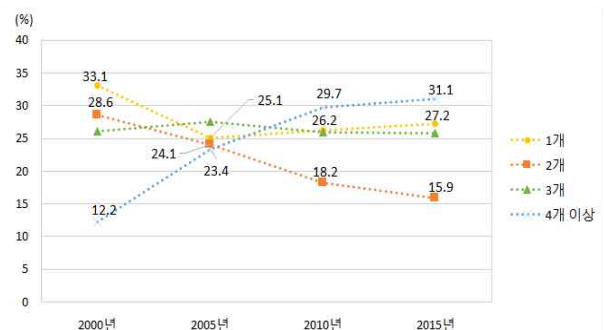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사용방수 ^{거실 및 식사용 방을 포함} 변화를 살펴보면

- 사용방수 「1개」의 비율은 2000년 33.1%에서 2015년 27.2%로 5.9%p 감소
- 사용방수 「4개 이상」은 2000년 12.2%에서 2015년 31.1%로 18.9%p 증가
- 사용방수 「2개」는 2000년 28.6%에서 2015년 15.9%로 12.7%p 감소
- 사용방수 「3개」의 비율은 2000년 26% 내외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1인 가구 사용방수별 분포: 2000-2015년]



[1인 가구 사용방수별 비율 :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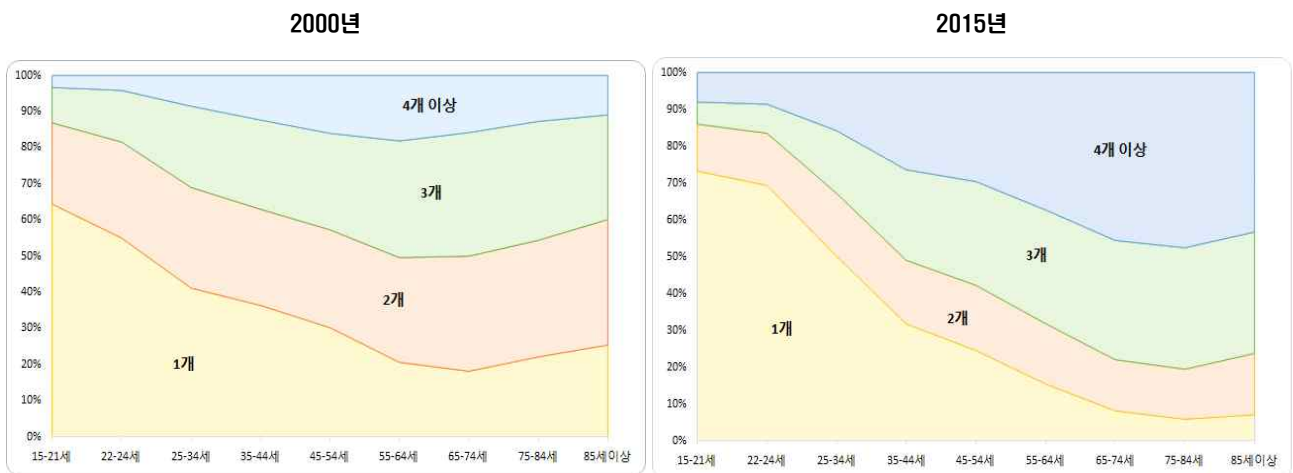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사용방수 변화를 살펴보면

- (사용방수 1개)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35세 이상에서는 감소함
 - 2000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 2015년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이상을 차지하여, 연령대가 확대됨
 - 2000년 15~21세(64.5%), 22~24세(55.0%), 25~34세(41.2%)
 - 2015년 15~21세(73.2%), 22~24세(69.4%), 25~34세(50.1%)

- (사용방수 4개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2000년 3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0~20%정도 비율을 보임
 - 2015년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장 주된 사용방수로 나타남
 - 2000년 55~64세(18.1%), 65~74세(15.8%), 75~84세(12.3%), 85세 이상(10.9%)
 - 2015년 55~64세(37.3%), 65~74세(45.6%), 75~84세(47.6%), 85세 이상(43.3%)
- (사용방수 2개) 2000년 대비 2015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사용방수 3개) 2000년 대비 2015년 4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감소
 - 2000년 15~21세(9.7%), 22~24세(14.3%), 25~34세(22.5%), 35~44세(24.7%)
 - 2015년 15~21세(6.0%), 22~24세(7.9%), 25~34세(17.0%), 35~44세(24.6%)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비율 : 2000년, 2015년]



< 표 13 > 1인 가구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0년	전체	2,224 (100.0)	104 (100.0)	138 (100.0)	551 (100.0)	348 (100.0)	246 (100.0)	293 (100.0)	356 (100.0)	167 (100.0)	21 (100.0)
	1개	(33.1)	(64.5)	(55.0)	(41.2)	(36.3)	(30.2)	(20.6)	(18.1)	(21.4)	(25.4)
	2개	(28.6)	(22.5)	(26.6)	(27.9)	(26.6)	(27.1)	(29.0)	(31.9)	(34.3)	(34.8)
	3개	(26.1)	(9.7)	(14.3)	(22.5)	(24.7)	(26.7)	(32.3)	(34.2)	(31.9)	(29.0)
	4개 이상	(12.2)	(3.2)	(4.1)	(8.5)	(12.3)	(16.0)	(18.1)	(15.8)	(12.3)	(10.9)
2005년	전체	3,170 (100.0)	110 (100.0)	201 (100.0)	774 (100.0)	502 (100.0)	427 (100.0)	372 (100.0)	472 (100.0)	274 (100.0)	36 (100.0)
	1개	(25.1)	(61.9)	(53.7)	(38.3)	(27.3)	(20.3)	(11.3)	(7.0)	(7.5)	(9.0)
	2개	(24.1)	(24.5)	(26.9)	(26.2)	(25.9)	(25.1)	(20.9)	(19.5)	(22.6)	(25.9)
	3개	(27.5)	(9.2)	(13.4)	(22.9)	(28.0)	(29.6)	(32.2)	(34.5)	(34.6)	(33.2)
	4개 이상	(23.4)	(4.4)	(5.9)	(12.6)	(18.8)	(25.1)	(35.6)	(39.0)	(35.3)	(31.9)
2010년	전체	4,142 (100.0)	123 (100.0)	197 (100.0)	918 (100.0)	678 (100.0)	638 (100.0)	522 (100.0)	573 (100.0)	419 (100.0)	74 (100.0)
	1개	(26.2)	(70.4)	(65.7)	(43.2)	(28.4)	(21.6)	(13.0)	(7.3)	(6.4)	(8.2)
	2개	(18.2)	(17.3)	(18.8)	(20.8)	(20.0)	(19.6)	(16.4)	(13.9)	(15.2)	(18.4)
	3개	(25.9)	(7.0)	(9.4)	(19.7)	(25.9)	(28.4)	(30.2)	(32.3)	(33.7)	(33.4)
	4개 이상	(29.7)	(5.3)	(6.1)	(16.3)	(25.8)	(30.4)	(40.5)	(46.4)	(44.7)	(40.0)
2015년	전체	5,211 (100.0)	162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1개	(27.2)	(73.2)	(69.4)	(50.1)	(31.7)	(24.5)	(15.4)	(8.1)	(5.8)	(7.0)
	2개	(15.9)	(12.8)	(14.2)	(17.1)	(17.3)	(17.7)	(16.4)	(13.9)	(13.6)	(16.7)
	3개	(25.8)	(6.0)	(7.9)	(17.0)	(24.6)	(28.2)	(30.9)	(32.4)	(33.0)	(33.0)
	4개 이상	(31.1)	(8.0)	(8.6)	(15.8)	(26.4)	(29.6)	(37.3)	(45.6)	(47.6)	(43.3)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5.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유무별

1인 가구의 「종교 있음」 및 「사회활동 참여」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1인 가구의 「종교 있음」 비율은 2005년 46.3%에서 2015년 41.9%로 4.4%p 감소하였고, 연령대별로는 8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특히,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종교 있음」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5년 15~21세(37.8%), 22~24세(37.6%)
 - 2015년 15~21세(25.7%), 22~24세(25.8%)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종교 있음」 비율 : 2005년, 2015년]



< 표 14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종교유무 변화 추이 (2005-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 분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05년	전 체	3,138 (100.0)	109 (100.0)	199 (100.0)	763 (100.0)	495 (100.0)	423 (100.0)	370 (100.0)	470 (100.0)	273 (100.0)	36 (100.0)
	종교 있음	(46.3)	(37.8)	(37.6)	(33.4)	(35.9)	(47.2)	(57.4)	(64.0)	(63.3)	(54.6)
	종교 없음	(53.7)	(62.2)	(62.4)	(66.6)	(64.1)	(52.8)	(42.6)	(36.0)	(36.7)	(45.4)
2015년	전 체	5,211 (100.0)	162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종교 있음	(41.9)	(25.7)	(25.8)	(28.3)	(30.7)	(37.4)	(49.3)	(58.1)	(59.4)	(55.0)
	종교 없음	(58.1)	(74.3)	(74.2)	(71.7)	(69.3)	(62.6)	(50.7)	(41.9)	(40.6)	(45.0)

* 2005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는 2010년 26.6%에서 2015년 23.3%로 3.3%p 감소

○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감소하였고, 특히 25~54세 연령대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짐

- 2010년 25~34세(27.3%), 35~44세(28.7%), 45~54세(30.9%)
- 2015년 25~34세(23.3%), 35~44세(24.9%), 45~54세(26.9%)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 : 2010년, 2015년]



< 표 15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여부 변화 추이 (201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22세 이상)	22~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10년	전 체	4,016 (100.0)	199 (100.0)	922 (100.0)	667 (100.0)	632 (100.0)	521 (100.0)	580 (100.0)	421 (100.0)	73 (100.0)
	참여함	(26.6)	(20.0)	(27.3)	(28.7)	(30.9)	(30.0)	(25.6)	(18.3)	(11.7)
	참여안함	(73.4)	(80.0)	(72.7)	(71.3)	(69.1)	(70.0)	(74.4)	(81.7)	(88.3)
2015년	전 체	5,049 (100.0)	255 (100.0)	915 (100.0)	747 (100.0)	794 (100.0)	824 (100.0)	734 (100.0)	637 (100.0)	142 (100.0)
	참여함	(23.3)	(19.0)	(23.3)	(24.9)	(26.9)	(27.2)	(23.7)	(16.0)	(9.4)
	참여안함	(76.7)	(81.0)	(76.7)	(75.1)	(73.1)	(72.8)	(76.3)	(84.0)	(90.6)

* 2010년 이전은 10% 표본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6. 직업(소분류)별 상위 10위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이 2005년까지는 「작물재배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변화

- 2015년 직업별(소분류)로는 경영관련 사무원이 19만 1천 가구(6.7%)로 가장 많고, 매장 판매 종사자 16만 3천 가구(5.7%), 작물재배 종사자 12만 6천 가구(4.4%) 순으로 나타남

〈 표 16 〉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별 상위 10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순 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직업	가 구 수	구 성 비	직업	가 구 수	구 성 비	직업	가 구 수	구 성 비	직업	가 구 수	구 성 비
1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158	12.8	작물재배 종사자	191	11.3	경영관련 사무원	169	7.2	경영관련 사무원	191	6.7
2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84	6.8	경영 관련 사무원	120	7.1	작물재배 종사자	150	6.4	매장 판매 종사자	163	5.7
3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61	5.0	매장 판매 종사자	119	7.0	매장 판매 종사자	140	6.0	작물재배 종사자	126	4.4
4	음식 조리 종사자	57	4.6	음식서비스 종사자	70	4.1	주방장 및 조리사	87	3.7	주방장 및 조리사	117	4.1
5	자동차 운전 종사자	34	2.8	주방장 및 조리사	65	3.8	자동차 운전원	71	3.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88	3.0
6	계수사무 종사자	33	2.6	자동차 운전원	49	2.9	음식서비스 종사자	59	2.5	음식서비스 종사자	86	3.0
7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31	2.5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48	2.8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59	2.5	자동차 운전원	76	2.6
8	일반관리자	28	2.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1	2.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7	2.5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71	2.5
9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27	2.2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8	2.2	영업종사자	53	2.2	영업종사자	70	2.4
10	소매 방문판매 및 이동판매 종사자	24	2.0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37	2.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46	2.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62	2.2

*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 제5차,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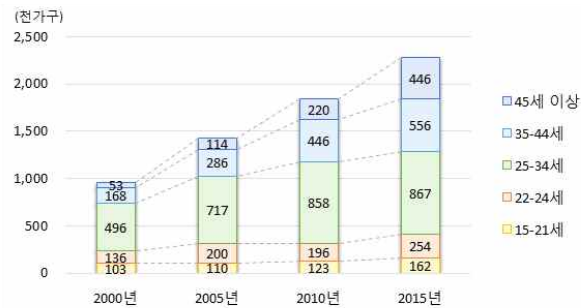
Ⅲ. 미혼 1인 가구 변화(표본부문 '00년~'15년)

1. 연령대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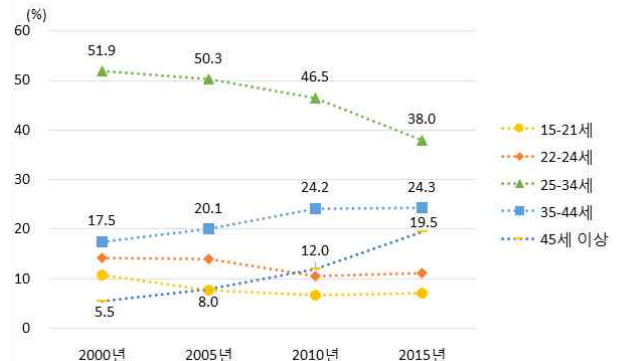
미혼 1인 가구의 25~34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35~44세와 45세 이상은 증가

- 1인 가구 중 미혼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51.9%에서 2015년에는 38.0%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35~44세의 비중은 2000년 17.5%에서 2015년 24.3%로, 45세 이상에서는 2000년 5.5%에서 2015년 1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 2000-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 2000-2015년]



< 표 17 >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변화 추이 (2000년-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인 가구 중 미혼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2000년	956 (100.0)	103 (10.8)	136 (14.3)	496 (51.9)	168 (17.5)	53 (5.5)
2005년	1,427 (100.0)	110 (7.7)	200 (14.0)	717 (50.3)	286 (20.1)	114 (8.0)
2010년	1,843 (100.0)	123 (6.7)	196 (10.6)	858 (46.5)	446 (24.2)	220 (12.0)
2015년	2,284 (100.0)	162 (7.1)	254 (11.1)	867 (38.0)	556 (24.3)	446 (19.5)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동지역에서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감소하였고, 읍면지역에서는 증가함

□ 동읍면부별로 1인 가구 미혼 비율을 보면

○ 동지역에서 1인 가구 미혼 비율은 50%내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에서는 1인 가구 미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 부 : 52.1%('00년) → 52.7%('05년) → 50.8%('10년) → 49.4%('15년)
- 읍 부 : 27.2%('00년) → 28.7%('05년) → 32.0%('10년) → 31.8%('15년)
- 면 부 : 13.1%('00년) → 14.5%('05년) → 15.5%('10년) → 16.3%('15년)

[동읍면부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비율 : 2000-2015년]



□ 시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5년에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이 특광역시에서 서울은 60% 내외, 부산은 40% 내외로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다른 지역은 감소함

○ 도지역에서 경기, 강원, 충북은 감소하고, 다른 도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제주도가 7.9%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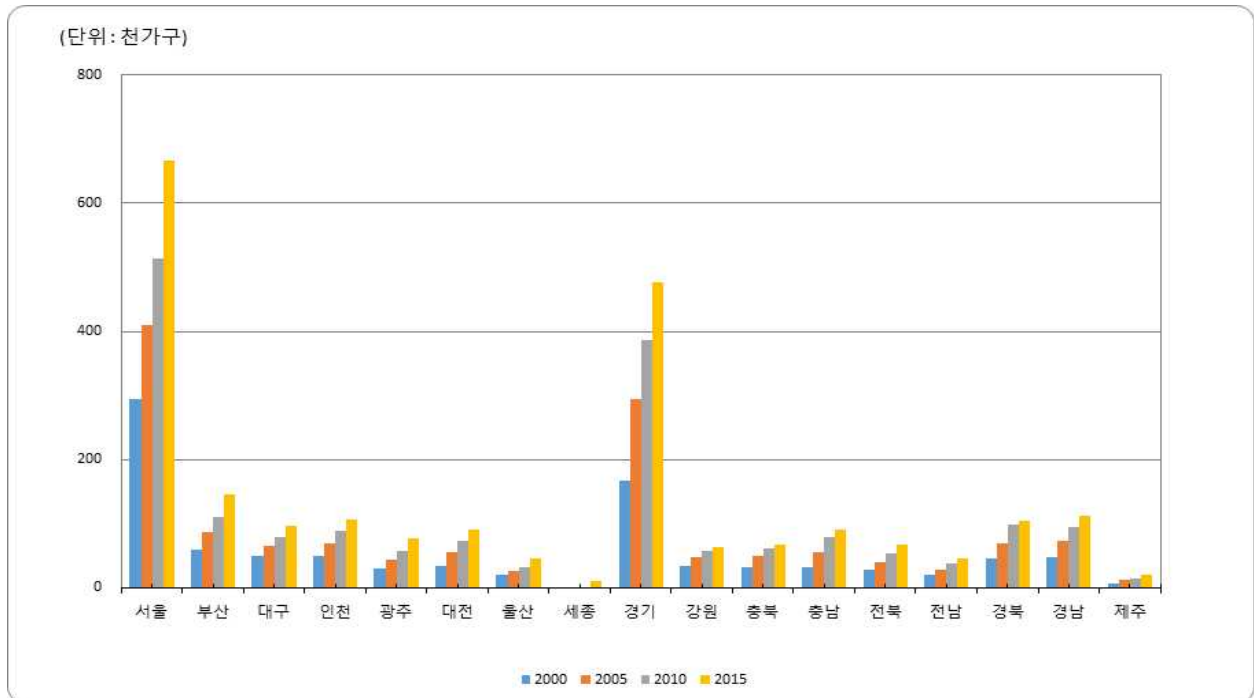
< 표 18 > 시도별 미혼 1인가구의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인 가구 (1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1인 가구 중 미혼
전국	2,223 (100.0)	956 (43.0)	3,170 (100.0)	1,427 (45.0)	4,142 (100.0)	1,843 (44.5)	5,211 (100.0)	2,284 (43.8)
동부	1,642 (100.0)	855 (52.1)	2,439 (100.0)	1,285 (52.7)	3,244 (100.0)	1,647 (50.8)	4,123 (100.0)	2,037 (49.4)
읍부	180 (100.0)	49 (27.2)	253 (100.0)	72 (28.7)	347 (100.0)	111 (32.0)	451 (100.0)	143 (31.8)
면부	401 (100.0)	53 (13.1)	478 (100.0)	69 (14.5)	552 (100.0)	85 (15.5)	637 (100.0)	104 (16.3)
서울	502 (100.0)	295 (58.7)	676 (100.0)	410 (60.7)	855 (100.0)	514 (60.1)	1,115 (100.0)	667 (59.8)
부산	154 (100.0)	59 (38.6)	222 (100.0)	87 (39.0)	291 (100.0)	111 (38.2)	362 (100.0)	145 (40.2)
대구	108 (100.0)	49 (45.6)	148 (100.0)	66 (44.4)	192 (100.0)	80 (41.6)	240 (100.0)	97 (40.4)
인천	97 (100.0)	49 (50.4)	141 (100.0)	70 (49.3)	191 (100.0)	89 (46.4)	243 (100.0)	107 (44.0)
광주	60 (100.0)	31 (51.8)	87 (100.0)	44 (50.0)	123 (100.0)	58 (47.7)	163 (100.0)	77 (47.0)
대전	63 (100.0)	35 (55.8)	99 (100.0)	55 (56.0)	135 (100.0)	74 (55.0)	169 (100.0)	90 (53.2)
울산	43 (100.0)	20 (47.5)	58 (100.0)	27 (46.2)	77 (100.0)	33 (43.2)	104 (100.0)	45 (43.0)
세종	— —	— —	— —	— —	— —	— —	22 (100.0)	11 (52.0)
경기	337 (100.0)	168 (49.8)	563 (100.0)	294 (52.1)	777 (100.0)	387 (49.7)	1,028 (100.0)	477 (46.4)
강원	91 (100.0)	35 (37.8)	122 (100.0)	47 (38.7)	155 (100.0)	57 (36.4)	190 (100.0)	63 (33.1)
충북	79 (100.0)	32 (41.0)	115 (100.0)	49 (43.0)	150 (100.0)	62 (41.5)	174 (100.0)	67 (38.3)
충남	101 (100.0)	32 (32.1)	149 (100.0)	55 (36.8)	202 (100.0)	79 (39.0)	236 (100.0)	90 (38.0)
전북	105 (100.0)	29 (27.7)	137 (100.0)	40 (29.5)	175 (100.0)	53 (30.5)	215 (100.0)	68 (31.4)
전남	131 (100.0)	21 (16.4)	164 (100.0)	28 (17.2)	197 (100.0)	38 (19.3)	219 (100.0)	45 (20.4)
경북	164 (100.0)	45 (27.5)	225 (100.0)	70 (31.0)	290 (100.0)	98 (34.0)	325 (100.0)	105 (32.2)
경남	163 (100.0)	48 (29.2)	226 (100.0)	73 (32.2)	286 (100.0)	94 (32.7)	347 (100.0)	112 (32.2)
제주	26 (100.0)	7 (28.0)	38 (100.0)	13 (33.3)	45 (100.0)	15 (34.0)	59 (100.0)	21 (35.9)

* 2000년은 미상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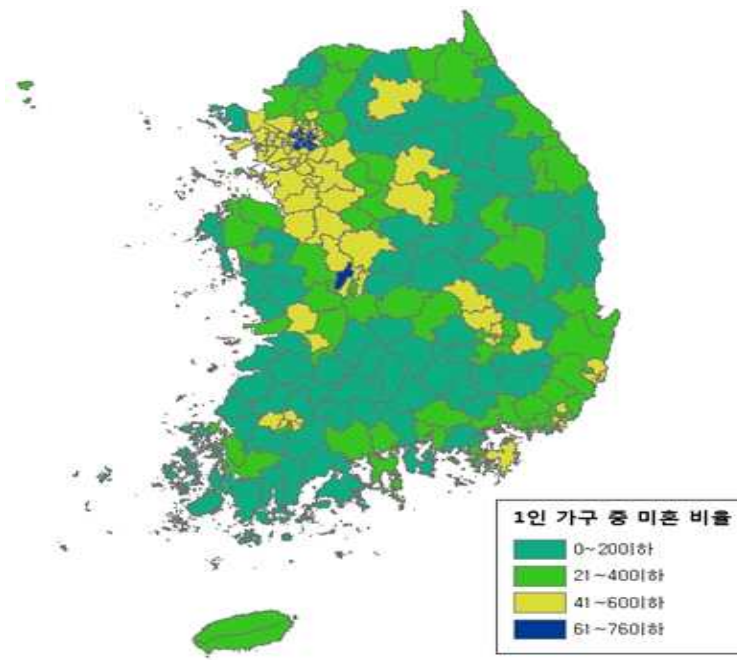
[시도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분포 : 2000-2015년]



□ 시군구별로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을 보면

- 2000년에는 상위 20개 지역 중 12개가 서울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15개로 증가하였음

[시군구별 1인 가구 중 미혼의 비율 : 2015년]



< 표 19 > 1인 가구 중 미혼 비율 상위 20개 지역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

순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	서울 광진구	68.6	서울 관악구	79.4	서울 관악구	78.0	서울 관악구	76.2
2	서울 관악구	68.4	서울 강남구	72.8	서울 강남구	71.9	서울 마포구	69.9
3	서울 동작구	67.6	서울 광진구	69.6	서울 동작구	69.5	서울 동작구	69.5
4	서울 강남구	66.6	서울 마포구	68.9	서울 마포구	68.8	서울 광진구	69.2
5	서울 서초구	65.7	서울 서초구	67.0	서울 광진구	68.3	서울 강남구	68.4
6	경기 안산시	65.4	서울 동작구	66.7	대전 유성구	66.6	서울 서초구	64.3
7	대전 유성구	64.4	대전 유성구	66.2	서울 서초구	65.4	대전 유성구	64.2
8	인천 연수구	64.1	경기 시흥시	65.6	경기 오산시	64.0	서울 성동구	63.9
9	서울 마포구	64.0	경기 수원시	64.9	서울 서대문구	62.5	서울 동대문구	63.4
10	대전 서구	62.6	경기 오산시	64.2	서울 동대문구	62.4	서울 서대문구	62.8
11	경기 수원시	62.5	경기 안산시	63.1	경기 수원시	62.2	서울 종로구	62.0
12	충북 청주시	62.2	서울 서대문구	62.6	경북 구미시	61.5	서울 용산구	62.0
13	서울 송파구	60.8	대전 서구	62.1	경북 경산시	61.0	서울 영등포구	59.6
14	서울 성동구	60.7	서울 송파구	61.5	서울 종로구	60.9	충남 천안시	58.8
15	서울 금천구	59.5	충북 청주시	61.4	서울 성북구	60.2	서울 송파구	58.7
16	서울 서대문구	59.3	경북 경산시	61.1	서울 용산구	60.1	서울 성북구	58.1
17	서울 영등포구	58.7	경북 구미시	60.6	서울 성동구	60.0	경북 구미시	57.6
18	서울 동대문구	58.5	서울 동대문구	60.4	서울 송파구	59.5	경기 수원시	57.5
19	경남 창원시	57.8	서울 성동구	60.1	충남 천안시	59.4	경기 오산시	57.0
20	경기 부천시	57.7	서울 종로구	59.3	대전 서구	59.4	서울 중구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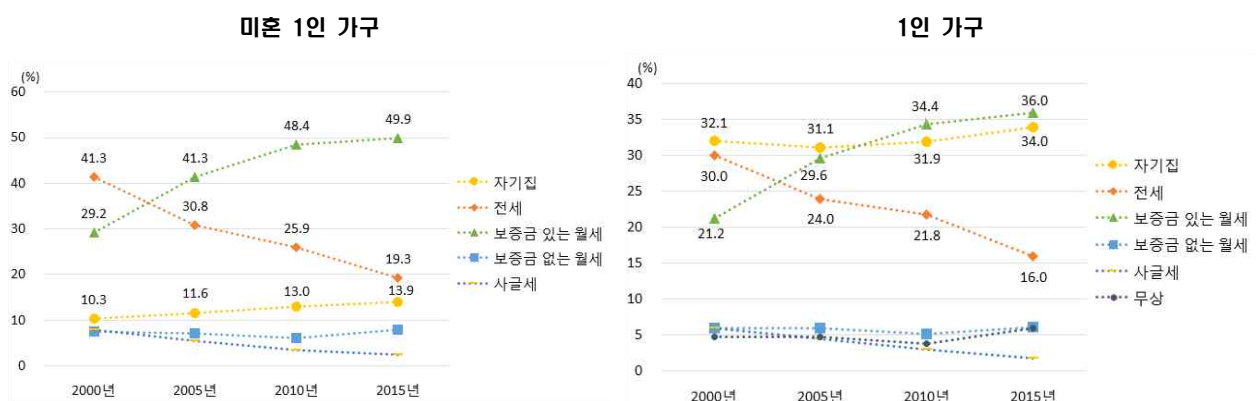
2. 점유형태별

미혼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0년 「전세」였으나, 2005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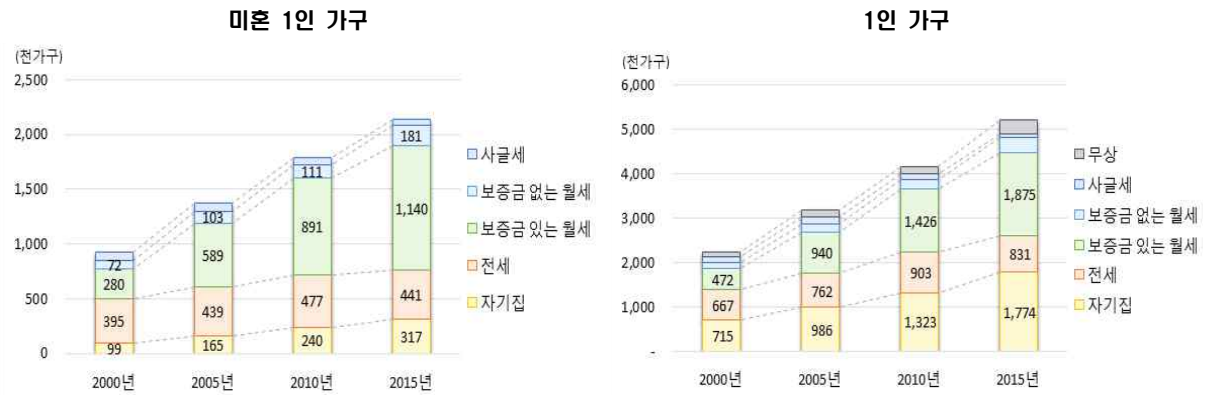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 「자기 집」인 비율은 1인 가구 중 미혼은 10%대 이상, 1인 가구는 30%대를 유지
 - 미혼 1인 가구 10.3%('00년) → 11.6%('05년) → 13.0%('10년) → 13.9%('15년)
 - 1인 가구 32.1%('00년) → 31.1%('05년) → 31.9%('10년) → 34.0%('15년)
- 「전세」는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41.3%에서 2015년 19.3%로 22.0%p 감소하여,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4.0%p 감소보다 감소폭이 큼
 - 미혼 1인 가구 41.3%('00년) → 30.8%('05년) → 25.9%('10년) → 19.3%('15년)
 - 1인 가구 30.0%('00년) → 24.0%('05년) → 21.8%('10년) → 16.0%('15년)
- 「보증금 있는 월세」는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29.2%에서 2015년 49.9%로 20.7%p 증가하여,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4.8%p 증가보다 증가폭이 큼
 - 미혼 1인 가구 29.2%('00년) → 41.3%('05년) → 48.4%('10년) → 49.9%('15년)
 - 1인 가구 21.2%('00년) → 29.6%('05년) → 34.4%('10년) → 36.0%('15년)

[점유형태별 비율 : 2000-2015년]



[점유형태별 분포 : 2000-2015년]



< 표 20 >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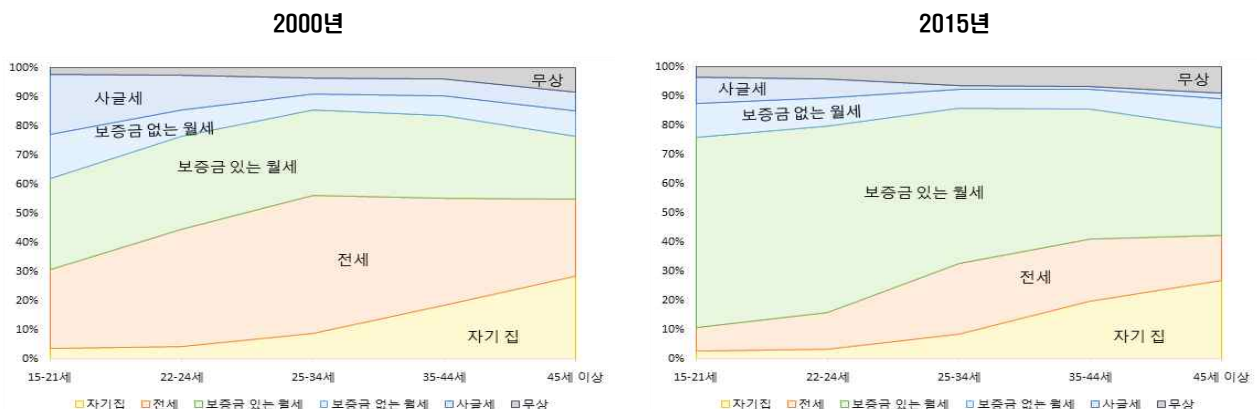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2000년	956 (100.0)	99 (10.3)	395 (41.3)	280 (29.2)	72 (7.5)	77 (8.0)	35 (3.6)
	2005년	1,427 (100.0)	165 (11.6)	439 (30.8)	589 (41.3)	103 (7.2)	78 (5.4)	53 (3.7)
	2010년	1,843 (100.0)	240 (13.0)	477 (25.9)	891 (48.4)	111 (6.0)	65 (3.5)	59 (3.2)
	2015년	2,284 (100.0)	317 (13.9)	441 (19.3)	1,140 (49.9)	181 (7.9)	57 (2.5)	148 (6.5)
1인 가구 (15세 이상)	2000년	2,223 (100.0)	715 (32.1)	667 (30.0)	472 (21.2)	133 (6.0)	133 (6.0)	104 (4.7)
	2005년	3,170 (100.0)	986 (31.1)	762 (24.0)	940 (29.6)	189 (6.0)	141 (4.4)	153 (4.8)
	2010년	4,142 (100.0)	1,323 (31.9)	903 (21.8)	1,426 (34.4)	210 (5.1)	124 (3.0)	157 (3.8)
	2015년	5,211 (100.0)	1,774 (34.0)	831 (16.0)	1,875 (36.0)	320 (6.1)	96 (1.8)	315 (6.0)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 미혼 1인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 (자기 집) 2000년 대비 2015년 「자기 집」 거주 비율이 큰 변화가 없음
 - 2000년 25~34세(8.7%), 35~44세(18.4%), 45세 이상(28.4%)
 - 2015년 25~34세(8.6%), 35~44세(19.7%), 45세 이상(26.9%)
- (전세) 2000년에 대비하여 2015년 「전세」 거주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22~34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큼
 - 2000년 25~34세는 47.5%, 35~44세는 36.8%로 해당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였으나,
 -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5~44세 연령대에서만 20%대를 유지함
 - 2000년 22~24세(40.5%), 25~34세(47.5%), 35~44세(36.8%)
 - 2015년 22~24세(12.6%), 25~34세(24.1%), 35~44세(21.4%)
- (보증금 있는 월세) 2005년에 모든 연령대에서 주된 점유형태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4세 이하 연령대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남
 - 2000년에는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30%보다 약간 높았으나,
 -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60%이상이고, 25~34세에서도 53.2%로 나타남
 - 2000년 15~21세(31.4%), 22~24세(31.7%), 25~34세(29.2%)
 - 2015년 15~21세(65.2%), 22~24세(63.9%), 25~34세(53.2%)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 2000년, 2015년]



< 표 21 >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2000년	전 체	956 (100.0)	103 (100.0)	136 (100.0)	496 (100.0)	168 (100.0)	53 (100.0)
	자기 집	(10.3)	(3.6)	(4.2)	(8.7)	(18.4)	(28.4)
	전 세	(41.3)	(27.1)	(40.5)	(47.5)	(36.8)	(26.5)
	보증금 있는 월세	(29.2)	(31.4)	(31.7)	(29.2)	(28.4)	(21.7)
	보증금 없는 월세	(7.5)	(14.9)	(9.1)	(5.6)	(6.9)	(8.7)
	사글세	(8.0)	(20.6)	(12.0)	(5.3)	(5.7)	(6.3)
	무 상	(3.6)	(2.4)	(2.5)	(3.6)	(3.9)	(8.4)
2005년	전 체	1,427 (100.0)	110 (100.0)	200 (100.0)	717 (100.0)	286 (100.0)	114 (100.0)
	자기 집	(11.6)	(3.3)	(4.5)	(9.3)	(18.8)	(28.1)
	전 세	(30.8)	(17.2)	(25.9)	(35.7)	(30.3)	(22.7)
	보증금 있는 월세	(41.3)	(48.3)	(48.1)	(42.2)	(36.7)	(28.7)
	보증금 없는 월세	(7.2)	(13.4)	(9.0)	(5.7)	(6.7)	(8.6)
	사글세	(5.4)	(15.6)	(9.9)	(3.4)	(3.7)	(5.0)
	무 상	(3.7)	(2.2)	(2.6)	(3.7)	(3.8)	(7.0)
2010년	전 체	1,843 (100.0)	123 (100.0)	196 (100.0)	858 (100.0)	446 (100.0)	220 (100.0)
	자기 집	(13.0)	(3.2)	(3.7)	(9.5)	(19.3)	(28.0)
	전 세	(25.9)	(11.3)	(17.2)	(30.1)	(28.0)	(21.4)
	보증금 있는 월세	(48.4)	(61.4)	(61.3)	(50.4)	(42.3)	(33.9)
	보증금 없는 월세	(6.0)	(11.3)	(8.3)	(4.6)	(5.1)	(8.1)
	사글세	(3.5)	(11.2)	(7.8)	(2.1)	(2.2)	(3.7)
	무 상	(3.2)	(1.6)	(1.8)	(3.4)	(3.1)	(4.9)
2015년	전 체	2,284 (100.0)	162 (100.0)	254 (100.0)	867 (100.0)	556 (100.0)	446 (100.0)
	자기 집	(13.9)	(2.9)	(3.3)	(8.6)	(19.7)	(26.9)
	전 세	(19.3)	(7.8)	(12.6)	(24.1)	(21.4)	(15.4)
	보증금 있는 월세	(49.9)	(65.2)	(63.9)	(53.2)	(44.6)	(36.7)
	보증금 없는 월세	(7.9)	(11.6)	(9.7)	(6.4)	(6.6)	(10.1)
	사글세	(2.5)	(9.0)	(6.3)	(1.3)	(1.1)	(2.0)
	무 상	(6.5)	(3.5)	(4.2)	(6.4)	(6.6)	(8.9)

* 2000년은 미상 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3. 사용방수별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2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4개 이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 이후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 ^{거실 및 식사용 방을 포함} 변화를 보면

○ 「사용방수 1개」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45.3%, 2015년 45.2%로 비슷한데, 전체 1인 가구는 2000년 33.1%에서 2015년 27.2%로 5.9%p 감소

- 미혼 1인 가구 45.3%('00년) → 39.2%('05년) → 42.2%('10년) → 45.2%('15년)
- 1인 가구 33.1%('00년) → 25.1%('05년) → 26.2%('10년) → 27.2%('15년)

○ 「사용방수 2개」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26.9%에서 2015년 17.3%로 9.6%p 감소하여, 같은 기간 1인 가구의 12.7%p 감소보다 감소 폭이 작음

- 미혼 1인 가구 26.9%('00년) → 26.6%('05년) → 20.6%('10년) → 17.3%('15년)
- 1인 가구 28.6%('00년) → 24.1%('05년) → 18.2%('10년) → 15.9%('15년)

○ 「사용방수 3개」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내외를 유지하고, 전체 1인 가구도 25% 이상을 유지하여 큰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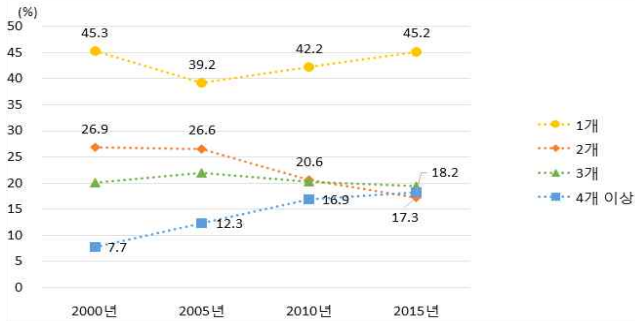
- 미혼 1인 가구 20.1%('00년) → 21.9%('05년) → 20.3%('10년) → 19.4%('15년)
- 1인 가구 26.1%('00년) → 27.5%('05년) → 25.9%('10년) → 25.8%('15년)

○ 「사용방수 4개 이상」인 비율이 1인 가구 중 미혼은 2000년 7.7%에서 2015년 18.2%로 10.5%p 증가하여, 1인 가구의 18.9%p 증가보다 증가 폭이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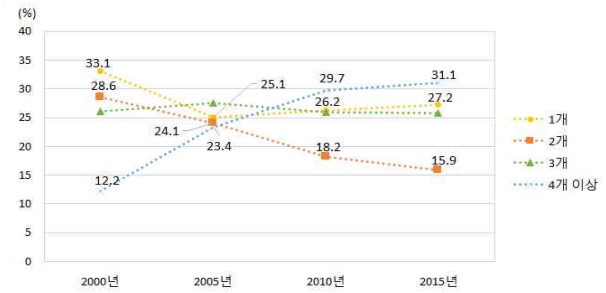
- 미혼 1인 가구 7.7%('00년) → 12.3%('05년) → 16.9%('10년) → 18.2%('15년)
- 1인 가구 12.2%('00년) → 23.4%('05년) → 29.7%('10년) → 31.1%('15년)

[사용방수별 비율 : 2000-2015년]

미혼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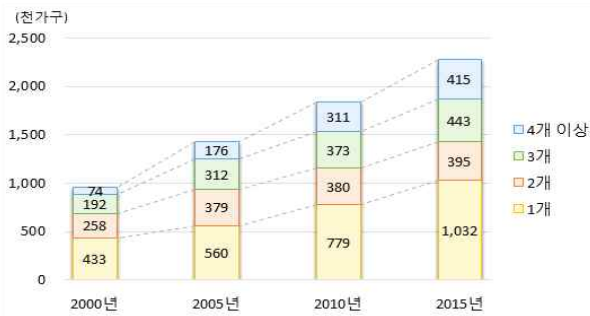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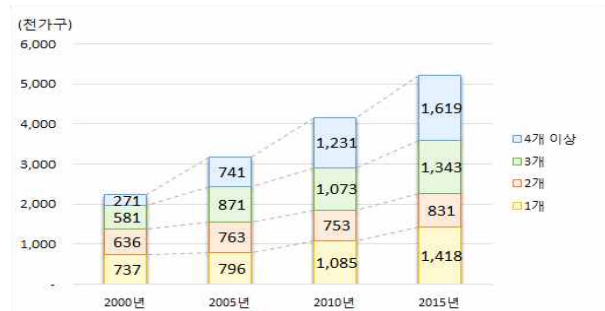


[사용방수별 분포: 2000-2015년]

미혼 1인 가구



1인 가구



< 표 22 > 미혼 1인 가구의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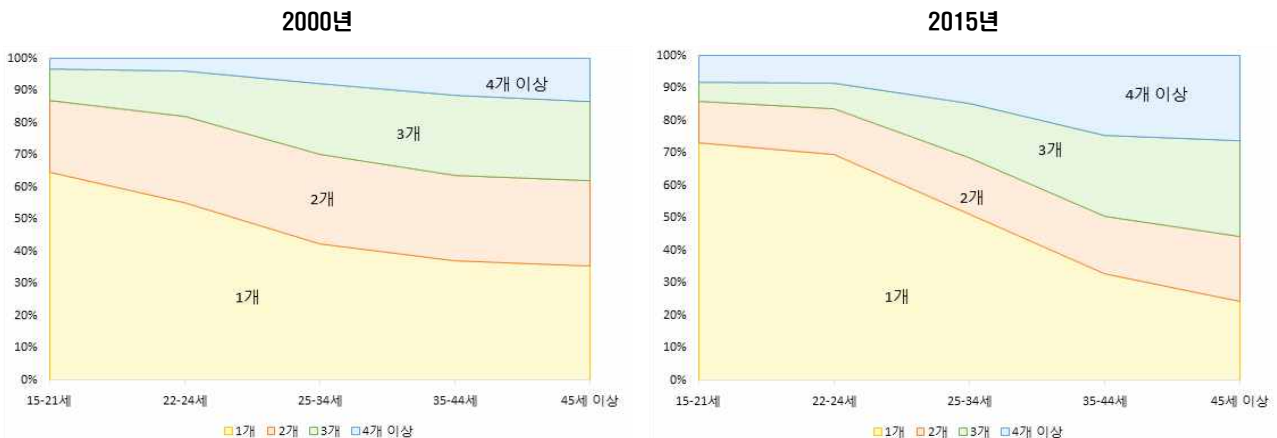
(단위 : 천 가구, %)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이상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2000년	956 (100.0)	433 (45.3)	258 (26.9)	192 (20.1)	74 (7.7)
	2005년	1,427 (100.0)	560 (39.2)	379 (26.6)	312 (21.9)	176 (12.3)
	2010년	1,843 (100.0)	779 (42.2)	380 (20.6)	373 (20.3)	311 (16.9)
	2015년	2,284 (100.0)	1,032 (45.2)	395 (17.3)	443 (19.4)	415 (18.2)
1인 가구 (15세 이상)	2000년	2,224 (100.0)	737 (33.1)	636 (28.6)	581 (26.1)	271 (12.2)
	2005년	3,170 (100.0)	795 (25.1)	763 (24.1)	871 (27.5)	741 (23.4)
	2010년	4,142 (100.0)	1,085 (26.2)	753 (18.2)	1,073 (25.9)	1,231 (29.7)
	2015년	5,211 (100.0)	1,418 (27.2)	831 (15.9)	1,343 (25.8)	1,619 (31.1)

□ 연령대별로 사용 방 수 변화를 살펴보면

- (사용방수 1개) 34세 이하에서 증가, 35세 이상에서는 감소
 - 2000년 24세 이하에서 50%이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25~34세까지 확대됨
 - 2000년 15~21세(64.7%), 22~24세(55.3%), 25~34세(42.2%)
 - 2015년 15~21세(73.2%), 22~24세(69.5%), 25~34세(51.4%)
- (사용방수 2개) 2000년 대비 2015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22~24세 및 25~34세에서 10.0%p 이상 감소
- (사용방수 3개) 34세 이하에서는 감소하였는데, 45세 이상에서는 증가함 35~44세에서 25%내외로 비슷함
 - 2000년 25~34세(21.8%), 35~44세(25.0%), 45세 이상(24.7%)
 - 2015년 25~34세(16.6%), 35~44세(24.9%), 45세 이상(29.4%)
- (사용방수 4개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35세 이상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2000년 3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0%대였으나, 2015년에는 25%내외의 비중을 차지함
 - 2000년 25~34세(7.8%), 35~44세(11.3%), 45세 이상(13.2%)
 - 2015년 25~34세(14.7%), 35~44세(24.5%), 45세 이상(26.2%)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비율 : 2000년, 2015년]



< 표 23 >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사용방수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미혼 1인 가구 (15세 이상)	15~21세	22~24세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2000년	전 체	956 (100.0)	103 (100.0)	136 (100.0)	496 (100.0)	168 (100.0)	53 (100.0)
	1개	(45.3)	(64.7)	(55.3)	(42.2)	(37.2)	(35.5)
	2개	(26.9)	(22.4)	(26.6)	(28.2)	(26.5)	(26.6)
	3개	(20.1)	(9.7)	(14.1)	(21.8)	(25.0)	(24.7)
	4개 이상	(7.7)	(3.2)	(4.0)	(7.8)	(11.3)	(13.2)
2005년	전 체	1,427 (100.0)	110 (100.0)	200 (100.0)	717 (100.0)	286 (100.0)	114 (100.0)
	1개	(39.2)	(62.0)	(53.9)	(39.3)	(27.4)	(20.9)
	2개	(26.6)	(24.5)	(26.9)	(26.7)	(26.3)	(27.9)
	3개	(21.9)	(9.2)	(13.4)	(22.4)	(28.3)	(29.9)
	4개 이상	(12.3)	(4.4)	(5.8)	(11.7)	(18.0)	(21.3)
2010년	전 체	1,843 (100.0)	123 (100.0)	196 (100.0)	858 (100.0)	446 (100.0)	220 (100.0)
	1개	(42.2)	(70.5)	(65.9)	(44.7)	(29.2)	(22.2)
	2개	(20.6)	(17.3)	(18.8)	(21.3)	(20.6)	(21.5)
	3개	(20.3)	(6.9)	(9.3)	(19.3)	(26.2)	(29.3)
	4개 이상	(16.9)	(5.3)	(6.0)	(14.7)	(24.0)	(27.0)
2015년	전 체	2,284 (100.0)	162 (100.0)	254 (100.0)	867 (100.0)	556 (100.0)	446 (100.0)
	1개	(45.2)	(73.2)	(69.5)	(51.4)	(32.8)	(24.4)
	2개	(17.3)	(12.8)	(14.2)	(17.3)	(17.9)	(20.0)
	3개	(19.4)	(6.0)	(7.8)	(16.6)	(24.9)	(29.4)
	4개 이상	(18.2)	(8.0)	(8.5)	(14.7)	(24.5)	(26.2)

* 2000년은 미상제외, 2010년 이전은 전수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4. 직업(소분류)별 상위 10위

미혼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은 2000년에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변화

- 2015년 미혼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은 경영관련 사무원이 12만 9천 가구(8.1%)로 가장 많고, 매장 판매 종사자 9만 2천 가구(5.8%), 음식서비스종사자 4만 8천 가구(3.0%) 순으로 나타남

〈 표 24 〉 미혼 1인 가구의 직업(소분류)별 상위 10위 변화 추이 (2000-2015년)

(단위 : 천 가구, %)

순 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직업	가구 수	구성 비	직업	가구 수	구성 비	직업	가구 수	구성 비	직업	가구 수	구성 비
1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48	7.4	경영관련 사무원	90	9.7	경영관련 사무원	120	9.1	경영관련 사무원	129	8.1
2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33	5.1	매장 판매 종사자	69	7.5	매장 판매 종사자	80	6.1	매장 판매 종사자	92	5.8
3	계수사무 종사자	28	4.3	음식서비스 종사자	40	4.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6	3.5	음식서비스 종사자	48	3.0
4	자동차 운전 종사자	19	2.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35	3.8	음식서비스 종사자	35	2.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48	3.0
5	사무 지원 종사자	18	2.8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2	3.5	영업종사자	33	2.5	주방장 및 조리사	43	2.7
6	음식 조리 종사자	16	2.4	자동차 운전원	24	2.6	학교 교사	30	2.3	영업종사자	42	2.7
7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15	2.3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3	2.5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0	2.3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37	2.4
8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15	2.3	학교 교사	22	2.4	자동차 운전원	30	2.3	학교 교사	34	2.2
9	일반사무 종사자	14	2.1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9	2.1	주방장 및 조리사	29	2.2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4	2.1
10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2.1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9	2.0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6	2.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32	2.0

*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2000년은 제5차, 2005년 이후는 제6차를 기준으로 함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 2017년도에 실시한 인구총조사는 제21차, 주택총조사는 제13차에 해당
- 2015년도 이후 전수항목은 등록센서스로 전환, 1년 주기로 공표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 실시), 동법 제 17조 1항(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 101001호,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 1010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501호, 2015.10.05.일부 개정

□ 기준시점

- 기준시점 : 조사년도 11. 1. 0시 기준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

□ 조사방법

-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1년 주기)
 - 인구, 가구, 주택 등 기본부문 통계 작성
- 표본조사는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실시(5년 주기)
 - 혼인, 교육, 사회활동 등 심층부문 통계 작성

II. 주요 용어 해설

1.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2.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주택 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